

A history of leadership

2026학년도 선형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6. 3.

건국대학교 입학처

Contents

I. 선행학습영향평가 개요	1
II.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4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 분석	6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0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1
VI. 부록	12
본교 규정	12
문항카드1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영어(공통))	14
문항카드2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국어(인문,예체능계))	29
문항카드3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수학(자연계))	50
문항카드4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	58
문항카드5 (논술(KU논술우수자)_통합(국어))	72
문항카드6 (논술(KU논술우수자)_통합(수학))	79
문항카드7 (논술(KU논술우수자)_자연)	88
검증위원 의견서	100

1. 건국대학교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O,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O,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재외국민과외국인	전체	O	O					O	준수
	논술 (KU논술우수자)	전체	O	O					O	준수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전체	O		O				X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O		O				X	
	실기/실적 (KU연기우수자)	예술계열	O			O			X	
	실기/실적 (KU체육특기자)	체육계열	O		O	O			X	
	학생부교과 (KU지역균형)	전체	X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전체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	전체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전체	X							
정시	수능(KU일반학생)	예술계열 체육계열	O			O			X	
	수능(KU일반학생)	전체 (예술계열, 체육계열 제외)	X							
	수능(농어촌학생)	전체	X							
	수능 (기초생활맞차상위)	전체	X							
	수능 (특성화고교졸업 자)	전체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0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0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 > 입시안내 > 통합 공지사항)	0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0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0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0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0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0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기타		
수시	재외국민과외국인	전체	0	0					0	준수
	논술 (KU논술우수자)	전체	0	0					0	준수
	학생부종합 (KU자기추천)	전체	0		0				X	해당없음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0		0				X	해당없음
	실기/실적 (KU연기우수자)	예술계열	0			0			X	해당없음
	실기/실적 (KU체육특기자)	체육계열	0			0			X	해당없음
정시	수능(KU일반학생)	예술계열 체육계열	0			0			X	해당없음

3. 대학별 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 유형	입학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영어		
						인문사회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선다형 고사	재외국민 과 외국인	인문, 예체능계	영어, 영어 I, 영어 II	1 ~ 35											○	
			국어, 독서, 문학	1 ~ 35		○										
		자연계	영어, 영어 I, 영어 II	1 ~ 35												○
			수학, 수학 I, 수학 II	1 ~ 25					○							

시험 유형	입학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영어		
						인문사회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 (KU 논술 우수자)	인문	국어, 사회	1		○	○	○								
			국어, 사회	2		○	○	○								
		통합	국어, 통합사회	1		○	○									
			수학, 수학 I, 수학 II	2	2-1				○							
				2	2-2					○						
				2	2-3					○						
		자연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1						○						
				2						○						
				3						○						
				4						○						

II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본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에 의거, 「입학전형 운영규정」(3-1-89)을 2023년 9월 11일에 제정하여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고사의 출제 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본교의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위의 공교육정상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됨.

제 16 조 (기구)

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입학전형심의위원회
3. 사정위원회
4. 입학정책연구위원회
5.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6.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본교 입학전형 운영규정 중>

제 6 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 32 조 (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 33 조 (구성)

-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내부위원은 입학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외부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전형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교 입학전형 운영규정 중>

● 위원회 조직 구성

- 내부 8명, 외부 3명, 간사 1명으로 구성
- 내부 8명 중 6명은 전임교원(입학처장 포함)이며, 2명은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 외부 3명은 모두 현직 교사 3명으로 구성

내부 8명	외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입학처장) 1명 · 교원 5명(전임교원) · 입학실무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사 3명(교과목별 각 1명)

구분	성명	직책(소속)	비고
위원장	박○○	입학처장	
위원	김○○	교원	
위원	오○○	교원	
위원	오○○	교원	
위원	이○○	교원	
위원	조○○	교원	
위원	김○○	입학팀장	당연직
위원	이○○	입학팀	
위원	김○○	서울 A고등학교 교사	외부 위원
위원	장○○	서울 B고등학교 교사	외부 위원
위원	최○○	서울 C고등학교 교사	외부 위원
간사	문○○	입학팀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 분석

1. 대학별고사 출제에 참여한 인원 및 고등학교 교원 참여 현황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재외국민과외국인	출제위원	7명	7명	0명
	검토위원	3명	0명	3명 (3명)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고사 (KU논술우수자)	출제위원	14명	14명	0명
	검토위원	5명	0명	5명 (5명)

2. 출제 전, 출제 과정

● 재외국민과외국인

-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
- 출제위원(교수): 7명(인문계 5명, 자연계 2명), 검토위원(교사): 3명(현직 교사/과목별)을 선정하여 문제 출제
- 현직 교사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출제와 관련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 검증위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검증위원의 업무 범위와 일정 등 제공
- 검토의견서 작성: 검증위원이 출제문제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단계	기간	추진내용
방향 설정 (공통)	202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정책연구위원회 — 위원: 위원장 1인, 위원 9인(교원7인, 입학팀장1인, 입학팀1인), 간사 1인 — 시기: 2025. 3. 19.(수) — 내용: 출제방향 논의, 전형결과 보고 등

↓		
↓	위원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위원: 인문계 교수 5명, 자연계 교수 2명 검증위원: 현직 교사 3명 출제관리위원: 2명
↓	출제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 2025. 7. 15.(화) ~ 7. 18.(금) (본교 교원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수자료 제공,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에 대한 안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문항카드 작성 검증: 2025. 7. 16.(수) ~ 7. 18.(금) (현직 교사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 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이내 여부 검증 선행학습 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작성(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검증)
↓	환류 단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입학 실무자 및 현직 교사 구성 회의 개최: 2026. 3. 16.(월) 17:00 ~ 18:00 내용: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감수, 대학별 고사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분석·평가, 다음 연도 대학별 고사에 반영 사항 제안

● 논술고사

-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
- 출제위원(교수): 14명(인문계 7명, 자연계 7명), 검토위원(교사): 5명(현직 교사/과목별)을 선정하여 문제 출제
- 현직 교사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출제와 관련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 검증위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검증위원의 업무 범위와 일정 등 제공
- 검토의견서 작성: 검증위원이 출제문제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단계	기간	추진내용
↓	방향 설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정책연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위원장 1인, 위원 9인(교원7인, 입학팀장1인, 입학팀1인), 간사 1인 시기: 2025. 3. 19.(수) 내용: 출제 과목 범위 논의, 전형결과 보고 등
↓	공유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가이드북, 모의논술 고사 및 논술 특강 등을 통한 방향 공유 모의논술고사(오프라인) 운영: 2025. 7. 15.(화) 모의논술고사(온라인) 운영: 2025. 7. 16.(수) ~ 2025. 8. 17.(일) 논술가이드북 배포: 2025. 8. 온라인 논술 특강(상시): 건국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 검토의견서 작성: 출제문제 전반적인 내용을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여부 검토의견서 작성

3. 출제 이후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문, 전년도 비교 등 변화 추이, 개선 노력사항 등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출제 교과 관련 전임교수 및 고교 교사로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선행학습 예방 및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성 등을 확인
- 출제 문제에 대한 홍보
 - 출제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본교 커뮤니케이션본부를 경유하여 언론 보도
 - 기출문제, 출제 의도, 문항 해설 등 실질적인 출제 내용을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
- 논술 채점에 관한 사항
 -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가채점 회의를 개최하여 채점 자료집 등을 작성
 - 계열별 출제위원장이 출제 의도, 채점 기준, 평가방법 등을 채점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출제위원들은 채점기간 동안 채점위원들의 자문 역할을 진행
 - 문제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 및 선행학습에 대한 노력 등을 설명하고, 채점 자료집 등을 활용하여 채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 채점장 운영 시 관리위원을 배치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함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분석 결과 요약표

시험 유형	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부록2)
선다형고사	재외국민과외국인	인문, 예체능계	1 ~ 35		영어, 영어 I, 영어 II	○	1
			1 ~ 35		국어, 독서, 문학	○	2
		자연계	1 ~ 35		영어, 영어 I, 영어 II	○	1
			1 ~ 25		수학, 수학 I, 수학 II	○	3

시험 유형	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부록2)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KU 논술 우수자)	인문	1		국어, 사회	○	4
			2		국어, 사회	○	
		통합	1		국어, 통합사회	○	5
			2	2-1	수학, 수학 I, 수학 II	○	6
			2	2-2	수학, 수학 I, 수학 II	○	
			2	2-3	수학, 수학 I, 수학 II	○	
		자연	1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7
			2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3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4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1. 출제 및 검토 개선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맞추어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 논술(KU논술우수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음.
-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과정 전과 출제 업무 마무리 단계에서 출제위원들이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였고, 현직 고교 교사로 이루어진 검증위원들이 확인하였음. 또한, 고교 교사가 출제된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제 문제에 대해 이중으로 확인하고자 노력함.
- 2026학년도에도 KU논술우수자전형 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제경향, 형식, 분량 및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음.
- 논술에 대해서는 ① 모의논술, ② 논술특강, ③ 논술가이드북 등을 통하여 논술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 논술과의 일치도를 높인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며, 수험생과 교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
- 특히, 논술고사와 동일한 범위로 시행되는 모의논술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논술 시험 난이도 및 적절성에 대해 현직 고교 교사 및 본교 교육과정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며, 2027학년도에도 위 방법과 절차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

2. 출제 후 점검 강화

- 2027학년도 출제에도 각 교과목별로 현직 교사를 검증위원으로 동반 입소하게 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종 확인할 예정
- 고사 출제·검증 업무 숙지 절차 및 사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
 - 2015 고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출제위원, 채점위원, 검증위원, 입학실무자 등 모든 구성원이 2015 교육과정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
 - 2015 고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는 논술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를 통하여 개정된 고교 교육과정을 숙지하고 본교에서 운영하는 KU모의논술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변화된 고교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하여 연습(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본 논술에서는 모의논술 결과를 바탕으로 논술시험 난이도 및 적절성을 유지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예정
 -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 출제 관련해서도 논술 출제와 마찬가지로 관리하여 난이도 및 적절성을 유지할 예정

1. 본교 규정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운영규정

제정 2023. 9. 11. 1차 개정 2025.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장 제3절(입학과 등록)에 의거하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캠퍼스 입학처가 진행하는 신(편)입학전형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피 신고”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배제”란 대학의 장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을 해당 수험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부위주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 하는 전형을 말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4.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을 말한다.
5.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6.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교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전임입학사정관(채용, 전환, 교수)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분류한다.
7. “채용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처 소속으로 본교의 학생선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8. “전환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의 일반직원 중에서 입학처에 발령받아 입학사정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교수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과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위촉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중략)

제6절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제32조(설치) 본교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제33조(구성) ①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입학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 출제 등의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 및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외부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전형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하 생략)

2. 문항카드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

[문항카드 1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영어(공통)]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공통(영어) / 문제 1 ~ 3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영어 I, 영어 II
	핵심개념 및 용어	어휘, 어법, 담화 수준에서의 이해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약 50분	
2. 문항 및 자료		

※ 밑줄 친 (A)~(D) 가운데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5]

- For three days, Verna had (A)been lost in a sea of unconsciousness. The rhythmic beep of the heart monitor was the only melody (B)what dared to break the silence. Verna’s breathing was very shallow, and her husband Fred spent a lot of time (C)crying by her bedside. As Saturday afternoon light (D)came in through the window, Verna’s son walked into her room. [10점]
 ① (A) ② (B) ③ (C) ④ (D)
- The higher preval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mong younger generations (A)mean that a company’s environmental reputation may affect (B)its ability to recruit talent. “We know that it makes a hiring difference when we’re out (C)recruiting at universities. People ask about sustainability, and our recruiters (D)do talk about our packaging, so it is a draw for talent,” said Oliver Campbell, director of procurement at Dell. [10점]
 ① (A) ② (B) ③ (C) ④ (D)
- We can all become vulnerable to doubts about our belonging at any given moment, (A)depending on the situations we find ourselves in and how we interpret them. Greg Walton and I coined the term “belonging uncertainty” to refer to the state of mind (B)which one suffers from doubts about (C)whether one is fully accepted in a particular environment or ever (D)could be. [10점]
 ① (A) ② (B) ③ (C) ④ (D)

4. Many aspects of an ant's appearance (A)have likely evolved to meet a specific lifestyle requirement, although (B)the extent to which this is true has not been fully explored for all aspects of its body structure. Adaptations could be due to environment, available food, or predators. Long legs and large eyes are commonly seen in ground-foraging ants that need to move quickly to avoid predators in open ground or (C)being the first to acquire a food resource. In contrast, ants that forage and nest in leaf litter have (D)shorter legs and antennae, alongside small eyes. [10점]

- ① (A) ② (B) ③ (C) ④ (D)

5. There are (A)disturbing changes underway in today's school systems. Funding is frequently tied to scores achieved on standardized tests, which primarily evaluate rote memory. Teaching "to" tests like these inevitably (B)focuses resources and curriculum on the lower-scoring students. The pressure to bring up test scores for these struggling students (C)limiting time for the kinds of individualized learning that challenges all students to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 and teachers have less opportunity (D)to encourage creative thinking and incorporate hands-on activities. [10점]

- ① (A) ② (B) ③ (C) ④ (D)

※ 문맥 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6-22]

6. People have a strong desire to define categories using rules. It is a natural human goal to impose order and sense on the world, to be able to know what boxes everything should go into, with no _____. [10점]

- ① productivity ② commitment ③ ambiguity ④ structure

7. It is sometimes argued that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will serve to _____ opportunity for small companies as well as established media giants. Digitization and the growth of the Internet are indeed reducing many barriers to market entry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smaller enterprises and firms offering skills in new forms of content creation (such as computer games). [10점]

- ① suppress ② equalize ③ recognize ④ manipulate

8. One of the reasons it is so hard to change careers—or why we change, only to end up in the same boat—is that we can so fully _____ our institutional identities, relying on them to convey our worth and accomplishments to the outside world. [10점]

- ① internalize ② simulate ③ restrain ④ monitor

9. The quality of news is difficult to measure because there are no agreed-upon standards that _____ everyone's definition of high quality. The term *quality* generally refers to any attribute, service, or performance that is highly valued within a group or a community. [10점]

- ① reorganize ② derail ③ exceed ④ satisfy

10. When kids feel forced to do things—or are too tightly _____ in the *way* they do things—they’re likely to become less interested in what they’re doing and less likely to stick with something challenging. [10점]

- ① informed ② regulated ③ segmented ④ unlimited

11. Turning good ideas into robust innovations requires that the ideas be changed from bare-bones possibilities to something in which investors can see value. Some great ideas are _____ because their advocates did not provide a sufficiently compelling picture of the potential attractiveness of the innovation. [15점]

- ① overlooked ② privileged ③ incorporated ④ rotated

12. Physicians claim that a lot of what they do is _____. It is reasoning through the associations built up over years of practice. But when AI scientists work on the problem of medical diagnosis, their effort is to see the diagnostic process as a set of explicit procedures that can be captured in a program. [15점]

- ① consistent ② intuitive ③ competitive ④ primitive

13. Most classic theories and research on human development are based on Western samples because researchers once believed that the processes of human development were _____. More recent observations suggest that development varies dramatically with cultural context. [15점]

- ① unsteady ② sophisticated ③ universal ④ explicit

14. The essential feature of exchange _____ in village markets was that both buyer and seller expected to be better off after the exchange. [15점]

- ① transactions ② transformations ③ transitions ④ transcripts

15. An open-ended approach to life resists the narrative view that sees each of us as merely playing out a part in the _____ plot of our lives. Instead of illuminating freedoms, choices, and imagination, narrative proposes that we are slaves to plots we can’t know and didn’t write. [15점]

- ① embellished ② clandestine ③ proliferative ④ predestined

16. The distinction between information and knowledge is _____, but by most definitions knowledge combines information in such a way as to achieve understanding or “know-how.” [15점]

- ① contradictory ② controversial ③ confidential ④ contributive

17. People often cite Wolfgang Amadeus Mozart as a child _____, someone who acquired his musical skills very early. He started to compose music at the age of four. [15점]

- ① prodigy ② priest ③ pretender ④ prophet

18. The particular _____ of economic resources, like that of other resources, has consequences for productivity and future output. Output is distributed as payments to owners of factors of production and is an important incentive to further production. [15점]

- ① attribution ② allocation ③ dislocation ④ aggregation

19. Advances in human longevity make it possible to slow down and even _____ the aging process. [15점]

- ① reverse ② traverse ③ disperse ④ pervade

20. The brain does not record reality like a camera; it constructs a representation of reality through analysis and _____ of sensory information. [15점]

- ① synthesis ② transmission ③ specification ④ variation

21. Data will be generated from everywhere. Cars, smartphones, bodies, minds, homes, and cities will be sources of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that will grow exponentially and flow at an _____ speed over the internet. [15점]

- ① unquenchable ② underrepresented
③ unexceptionable ④ unprecedented

22. Throughout history, human imagination has been a double-edged sword. On one hand, it pushes new discoveries, but for every newly established scientific fact, there are often multiple incorrect hypotheses, which must be corrected along the way or risk becoming myths. Thomas Edison is credited with saying: "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on't work," implying that error is part of invention. Unfortunately, if errors or partial truths get circulated long enough, they can lead to a false echo chamber of repetition and suggest "truth" where none exists. For example, even though the *humors* have been discredited for centuries, some still believe in the myth that blood types (blood being one of the four *humors*) can determine personalities. A quick internet search finds more than five million websites related to this topic, meaning this myth is _____. [15점]

*humor: 체액

- ① fictitious to arise ② incomplete to flourish
③ slow to die ④ delicate to disseminate

23.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A key assumption in consumer societies has been the idea that "money buys happiness." Historically,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is assumption—until the last few generations, a majority of people have lived close to (A)subsistence, so an increase in income brought genuine increases

in material well-being (e.g., food, shelter, health care) and this has produced (B)more happiness. However, in a number of developed nations, levels of material well-being have moved beyond subsistence to remarkable (C)abundance. Developed nations have had several generations of unparalleled material prosperity, and a clear understanding is emerging: More money does bring more happiness when we are living on a very (D)high income. However, as a global average, when per capita income reaches the range of \$13,000 per year, additional income adds relatively little to our happiness, while other factors such as personal freedom, meaningful work, and social tolerance add much more.

- ① (A) ② (B) ③ (C) ④ (D)

24.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Clean water is to fish what clean air is to people. Unfortunately, as a result of human activities, (A)aquatic environments are being degraded as they receive excess sediments from deforested areas, contaminated waters from cities and agricultural fields, and other human and animal wastes. Located at the (B)interface between land and water, wetlands intercept water and sediments coming from uplands. In this position, wetlands act as natural filters where excess nutrients can be stored or transformed in the sediments or taken up by plants for growth. Contaminants (e.g., agrochemicals and heavy metals) can be bound to sediments, (C)dissolved in runoff water, or transformed to less harmful forms by plants or microbes. Wetland vegetation also (D)accelerates runoff and traps sediments that otherwise would go offshore, increasing water turbidity and sedimentation in the oceans.

- ① (A) ② (B) ③ (C) ④ (D)

25.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All types of tears have three layers: a thin mucus layer that sits directly on the eye, a watery layer in the middle, and a thin oily layer on top that prevents the tear from evaporating. Interestingly enough, scientists have found that the types of tears are (A)chem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Compared to basal tears, the watery portion of reflex tears is larger and has higher levels of antibodies that can stop (B)harmful microorganisms. On the other hand, emotional tears contain more protein. One interpretation is that this higher protein content makes emotional tears (C)slippery, so they run down the face more slowly, making them more likely to be seen by others. According to that interpretation, the more visible tears are, the (D)more likely they are to bring out compassion from observers. “There must have been some point in time, evolutionarily, when tears became something that automatically set off empathy and compassion in another,” says Michel Trimble, a doctor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 ① (A) ② (B) ③ (C) ④ (D)

26.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Ideally, business requires a stable environment within which to operate. (A)_____, the

framework of law which governs business activities is subject to constant change. The burden of keeping up to date may be eased slightly by making use of professional people such as an accountant or solicitor to advise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such as areas as tax or company law. (B)_____, the businessman will still need to keep himself informed of general legal changes which will affect his day-to-day running of the business. If he employs others in his business, he will need to keep up to date on such matters as health and safety at work, the rights of his employees and his duties as an employer.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However | Namely | ② | Moreover | Similarly |
| ③ | Therefore | By contrast | ④ | Yet | Nevertheless |

27.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In marketing research, consumers commonly participate in interviews, focus groups, or the like, during which they indicate their desires, preference, or in marketing terms, their wants. Some methods also try to detect the consumers' subconscious emotions, (A)_____, with varying rates of success. Such behavioral methods, where humans watch how fellow humans react when, e.g., exposed to a certain brand or product, manually coding and categorizing their emotions, are labour intensive, and consequently are rarely applied or applied in small sample sizes. Human-inspired AI makes such methods possible on large scale, and even delivering instantaneous results will be possible. (B)_____, via facial recognition in a supermarket, one might detect shoppers' emotions facing a shelf displaying the products of a new product launch. Collecting a vast amount of data from all supermarkets participating in the responsive launch nationwide would yield quite solid results.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however | For example | ② | in fact | However |
| ③ | similarly | As a result | ④ | moreover | On the contrary |

28.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15점]

We had 35 people in our group, but as we ordered our food the staff remained polite and welcoming, took the food order expediently, and put up the orders promptly, with no mistakes.

A few years ago, I took a group of restaurateurs and hoteliers to visit a number of restaurants in Rochester, New York. (A) At our first stop, a major burger franchise, members of our group were pleasantly surprised to find a vase with a bouquet of flowers in the ladies' washroom and a small plant in the men's room. (B) All of the group members were surprised to see such service and hospitality. (C) Though we never met him, this restaurant owner expressed hospitality and service to us. (D) No corporate policy required plants and flowers in the washrooms. Instead, the

independent franchisee personally saw to it that this particular burger restaurant was memorable.

- ① (A) ② (B) ③ (C) ④ (D)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creativity is that it takes a brilliant idea to solve a complex problem. While this may be true in pure sciences, in most commercial contexts, or even in day-to-day living, it is never that one silver bullet that does the magic. It is, in fact,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that counts. The key is to have enough ideas that solve specific parts of the overall problem, and then the thorny task looks very much tenable. Since creativity comes from combining concepts in an unusual fashion, and since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trace the origins of ideas, you are better off generating as many ideas as possible with the hope that some of them would click.

- ①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대다수의 아이디어보다 좋을 때가 있다.
②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③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④ 마법같은 힘을 가진 좋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31]

For many years, it was indeed widely believed that the adult brain was essentially 'set', with all the neurons and major connections we'd need. Sure, we learn new things and update our understanding of things all the time, meaning new connections are (A)regularly being formed and turned over in networks governing learning and memory. But in terms of overall physical structure and major connections, the stuff that makes us 'what we are', the adult brain was long thought to be '(B)done'. _____, in recent years there's been a steady stream of evidence revealing that the adult brain can change and adapt, even create new neurons, and experiences can still (C)reshape the brain, even as we head into our twilight years. Consider the taxi driver study, where constant driving and navigation of chaotic London streets leads to increased hippocampus size, revealing that the adult brain structure is somewhat (D)inflexible.

30. 밑줄 친 (A)~(D) 가운데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점]

- ① (A) ② (B) ③ (C) ④ (D)

3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 ① However ② Therefore ③ Moreover ④ For exampl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2-33]

The world is a field of the contest of values. We can hardly deny that, even if we suppose that some marine snails are bad snails killing fish, or (A)that pest insects come along, eat plant leaves,

and capture the stored energy that plants would have otherwise (B)used to preserve their own good kinds. When we recognize how the ecosystem is a permanent contest of goods in dialectic and exchange, it will become difficult to say that all or even any of the organisms in (C)themselves are bad kinds, ill-situated in their niches. The misfits are extinct, or soon will be. Rather it seems that many of them, maybe even all of them, will have to be respected for the skills and achievements (D)by which they survive over the millennia. At least we will have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_____, and it will seem arrogant to retreat into a human-centered environmental ethics.

32. 밑줄 친 (A)~(D) 가운데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0점]

- ① (A) ② (B) ③ (C) ④ (D)

33. 밑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 ① biological evolution
 ② intrinsic value in nature
 ③ their sustainability and adaptability
 ④ relationships with existing ecosystem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4-35]

During Black History Month, twelve-year-old Zach Hunter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slavery in America. He was shocked when his teacher told the class that ev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live as slaves. (A)_____,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millions of slave workers in mills and factories around the world, about half of whom are women and children.

Zach knew his conscience would not let him sit by while others were forced to live this way. That's why he decided to start a fund-raising project to support organizations dedicated to ending modern-day slavery. (B)_____, Zach didn't request huge checks or \$100 bills. Instead, he asked people for any loose change they found in their homes, cars, and pockets. Zach's idea caught on, and it wasn't long before others in his school started a collection for the cause. In fact, the idea was such a huge sensation that teens in schools all over the United States began piling up pennies, nickels, dimes, and quarters in support of this cause. Zach named his campaign "Loose Change to Loosen Chains." It has already raised thousands of dollars to free slaves around the world, and as the fund grows, it continues to gain momentum.

34.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 | | | | |
|---------------|---------------|----------------|-------------------|
| (A) | (B) | (A) | (B) |
| ① For example | ② Furthermore | ③ Nevertheless | ④ As a result |
| ⑤ In fact | ⑥ However | ⑦ Moreover | ⑧ On the contrary |

35. 밑글의 Zach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15점]

- ① 선생님으로부터 21세기에 노예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 ② 노예제도 종식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 ③ 사람들에게 주변에 잔돈을 찾아내 100달러 이상씩 기부하도록 요청했다.
- ④ 전 세계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수천 달러를 모금했다.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영어고사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무난하게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주어진 50분 이내에 35문항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어휘, 문법, 독해, 및 쓰기(간접 측정)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출제되었다. 영어로 쓰인 전공 교재의 내용을 막힘없이 이해하여 전공 교과목의 수업을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의 파악을 위하여, 주제와 대의의 파악, 지칭어 추론, 사실적 정보의 정확한 파악,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문항별 난이도에 맞게 배점에 차등을 두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 영어		관련 문항	
성취 기준1 (읽기)	고등학교 영어의 '읽기' 영역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글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과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1 2 3 4 5 12 13 14	
	[10영03-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0	
	[10영03-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3	
	[10영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4	
	[10영03-04]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29 30	
	[10영03-05]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32	
	[10영03-06]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33	
		34	
	성취 기준2 (쓰기)	고등학교 영어의 '쓰기' 영역에서는 목적, 상황, 형식에 맞는 글을 조리 있고 정확하게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 과정 중심 활동, 동료 수정 활동 등을 통해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 및 매체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글의 맥락 및 목적에 맞도록 타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등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10영04-0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27
[10영04-0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0영04-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0영04-04]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0영04-05] 간단한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0영04-06]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과목명 : 영어 I		관련문항
성취 기준1 (읽기)	고등학교 영어 I의 ‘읽기’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며,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높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 상황, 과업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여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4 5 6 7 9 10 11 12
	[12영 I03-01]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5
	[12영 I03-0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6
	[12영 I03-03]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1
	[12영 I03-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 할 수 있다.	22
	[12영 I03-05]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25
	[12영 I03-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26
		28
		31
	성취 기준2 (쓰기)	고등학교 영어 I의 ‘쓰기’영역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기록·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간단한 글로 표현하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실제 언어 재료 및 맥락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 상황, 과업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및 처리 능력을 길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12영 I04-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12영 I04-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2영 I04-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2영 I04-04]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하여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2영 I04-05] 서식, 이메일, 메모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2영 I04-06]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과목명 : 영어II		관련문항
성취 기준1 (읽기)	<p>고등학교 영어 II의 ‘읽기’영역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이해하도록 하며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높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주제, 상황, 과업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자들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한 영역에 대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및 처리 능력을 길러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p>	6 7 8 10 12 15 17
	[12영II03-01]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8
	[12영II03-0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9 20
	[12영II03-03]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1 22
	[12영II03-04]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27 28
	[12영II03-05]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32 35
	[12영II03-06]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성취 기준2 (쓰기)	<p>고등학교 영어 II의 ‘쓰기’영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기록·요약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간단한 글로 표현하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 언어 재료 및 맥락과 일상생활 속 다양한 주제, 상황, 과업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자들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한 영역에 대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영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및 처리 능력을 길러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p>
[12영II04-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세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28
[12영II04-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듣거나 읽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12영II04-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2영II04-04] 학업과 관련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2영II04-05]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짧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		
[12영II04-06]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12영II04-07]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해 비교·대조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High School English II	한상호 외 5인	YBM	2018	66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II	홍민표 외 4인	비상교육	2018	64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II	박준언 외 6인	YBM	2018	137	지문	x
High School English II	권혁승 외 5인	동아출판	2018	108	지문	x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3 EBS 수능특강(영어)	김옥환 외	EBS	2022	31, 35, 39	지문	0
2023 EBS 수능완성(영어)	이창수 외	EBS	2023	105	지문	0
2024 EBS 수능특강(영어)	이현우 외	EBS	2023	28, 42, 156, 184	지문	0
2024 EBS 수능완성(영어)	이창수 외	EBS	2023	15, 46, 125, 138, 146	지문	0
2025 EBS 수능완성(영어)	미상	EBS	2024	126	지문	0
2025 EBS 수능특강(영어)	류혜경 외	EBS	2024	22, 26, 36, 41, 71, 136	지문	0
2026 EBS 수능완성(영어)	미상	EBS	2025	23, 41	지문	
2026 EBS 수능특강(영어)	미상	EBS	2025	19, 22, 23, 25, 40, 42, 175	지문	0

5. 문항 해설

1번부터 5번 문항까지는 제시된 비교적 짧은 담화에서 어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고르는 유형으로, 영어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영어 구조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6번부터 22번 문항까지는 30~100단어의 비교적 짧은 담화 안에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로, 글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글의 주제부터 함축적 의미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3번부터 29번까지의 문항은 문맥 속 적절한 어휘의 사용에 대한 파악 능력과 접속사 이해 능력 문항, 그리

고 주어진 맥락 속에서 특정한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3번부터 35번까지의 문항은 비교적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1지문 2문항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세부 정보 파악, 글의 주제와 흐름 파악, 올바른 어법 및 어휘 사용 등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모두 선다형으로, 해당 사항 없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번호	정답
1	2
2	1
3	2
4	3
5	3
6	3
7	2
8	1
9	4
10	2
11	1
12	2
13	3
14	1
15	4
16	2
17	1
18	2
19	1
20	1

문항번호	정답
21	4
22	3
23	4
24	4
25	3
26	4
27	1
28	2
29	2
30	4
31	1
32	3
33	2
34	3
35	3

[문항카드 2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국어(인문, 예체능계)]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예체능계(국어) / 문제 1 ~ 3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약 50분	

2. 문항 및 자료

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보기 1> —————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기 2> —————

㉠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 굳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 여기는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구나.
 ㉣ 예쁜 귀걸이를 하나 샀어요.

- ① ㉠: ‘드러났다’를 ‘들어났다’로 적지 않는다. ... ㉠
- ② ㉡: ‘굳이’를 ‘구지’로 적지 않는다. ㉠
- ③ ㉢: ‘많고’를 ‘만코’로 적지 않는다. ㉡
- ④ ㉣: ‘귀걸이’를 ‘귀거리’로 적지 않는다. ㉡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을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높임 표현은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된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한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달라진다.

- ① “할머니께 인사 드려라.”에서 높이는 대상은 서술의 객체이다.
- ② “너는 어디로 가니?”에서 상대 높임법은 마지막 어절에 나타난다.
- ③ “교수님이 나에게 인사를 하셨다.”에서는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선생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의 뜻과 소리 사이의 관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이를 지켜야만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한편 소리와 뜻 사이에 일정한 약속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약속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약속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온’, ‘즈른’ 같은 단어들의 뜻을 잘 모르는 이유는 바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잘 알 수 없게 된 것은 시대에 따라 소리와 뜻 사이의 약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십의 열 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라는 뜻을 ‘온’이라는 소리로 나타내도록 약속되어 있었으나 후에 그러한 뜻을 ‘백(百)’이라는 소리로 나타내도록 약속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은 알지만 ‘온’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세 국어인 ‘훈민정음 어제 서문’과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언어의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기의 측면을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글을 세로로 썼으나 지금은 대개 가로로 쓴다는 점, 중세 국어에서는 ‘·노·미’처럼 이어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놈이’처럼 이어 적지 않는다는 점,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는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 등이 다르다.

음운의 측면을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 ‘뵤’ 등과 같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음운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성조]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 옆에 점을 찍었다. 훈민정음의 ‘나·랏 :말·쓰·미’를 보면 ‘나’와 ‘쓰’에는 점이 없고, ‘랏’과 ‘·미’에는 한 개, ‘:말’에는 두 개가 있다. 이 점들을 방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을 찍지 않게 되었다.

어휘 면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기존의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도 하였다. ‘스뭇디’라는 어휘가 없어진 것, ‘어린’의 뜻이 바뀐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법과 문법적 요소 또한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였다. ‘爲·왕·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위하 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中·등·國·국·에’의 ‘에’는 현대어 라면 ‘과’가 쓰일 것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문법에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점]

- ① 언어는 역사를 알려주는 도구이다.
- ②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③ 언어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규약이다.
- ④ 언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약속이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 ② 현대 국어에 비해 어휘가 더 다양하였다.
- ③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이 있었다.
- ④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점]

— <보기> —

[중세 국어]

孔·공子·직 읍중子·즈드려 날·러 곁·사·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솔·훈 父·부母
:모·씩 받·주·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하·오·디 아·니:흙·이 :효·도·익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호·야 일:흙·을 後:후世·세·예 :베퍼 ·뻘 父·부母:모를 :현·더케 :흙·이 :효
·도·익 ㅁ·춤·이니·라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험하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롯함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 ① ‘孔·공子·직’에서 ‘ㅣ’는 현대 국어와 문법에 차이가 있는 예가 되겠군.
- ② ‘솔·훈’은 현대 국어에서 소리가 변한 예가 되겠군.
- ③ ‘거·시·라’는 중세 국어에서 이어 적기를 한 예가 되겠군.
- ④ ‘일:흙’은 현대로 오면서 뜻이 바뀐 예가 되겠군.

※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어 사전에서는 사랑을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 과학자들은 이 정의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없이 간결한 이 사랑의 정의에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단어는 바로 마지막에 붙은 ‘감정’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사랑을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이 질문에 대해 신경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경 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란 감정’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만약 감정이라면,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즐거운 감정을 얼마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있다. 설령 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찡그리는 미국인의 표정을 보고 그가 화가 났다거나 슬프다는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고롭게도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을 수는 없다. 우리는 친구나 동생에게 연인이 생기면 그 사실을 다양한 행동을 보고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표정을 보고 읽어 낼 수는 없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여느 감정과 구별된다.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며, 그와 함께 하고 그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사진을 찍어 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된다.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 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 자기 공명 영상기[MRI]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 관찰했다.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됐다.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인 뇌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한 것이다.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난다.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서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 왕성해진 신체, 신경과민, 불면, 식욕 상실, 떨림, 두근거리는 가슴, 가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 모든 증세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흔히 관찰되는 증세가 아니던가.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통념을 문제시하며 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을 소재로 삼고 있다.

7. 윗글의 ‘신경 과학자’들의 견해와 다른 것은? [15점]

- ①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사랑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행동을 동반한다.
- ③ 사랑은 보상 중추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 ④ 사랑은 뇌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의 영향을 받는다.

8. 사랑에 빠진 연인이 보이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 ②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 ③ 뇌 안에서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 변화가 생긴다.
- ④ 고민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멀어지려 한다.

9. 다음의 밑줄 친 단어 중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0점]

- ① 게임에 빠지다.
- ② 위험에 빠지다.
- ③ 개울에 빠지다.
- ④ 혼수상태에 빠지다.

※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어머니 택호는 명포댁.

당연히 명포엔 어머니의 친정이자 우리 사 남매의 외가가 있었다. 숲으로 둘러싸인 아버지의 동네 숲실과 달리, 지형이 양지바른 포구 같아서 명포(明浦)라 불렀던 외가 동네에는, 배들이 들락날락하는 포구는 없어도 금모래가 빛나고 예쁜 조약돌이 널린 강변과 술한 생명을 품고 밤이나 낮이나 흐르는 얇은 강이 있었다.(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막내를 임신한 어머니는 동생과 ‘나’ 중에서 한 명을 친정에 일 년 동안 맡기기로 하는데, 결국 ‘나’가 일 년 동안 외가에 있게 된다.

일 년 후의 어느 여름날 느지막한 오후, 나는 늘 하던 대로 바가지 하나를 들고 명포 물가로 나갔다. 저녁 국거리로 쓸 고디, 표준어로는 다슬기를 주워야 했다. 고디는 흔하게 널려 있었다. 뽕양계 국물이 우려날 때 텃밭에서 뜯은 부추를 뿌려 끓인 고디 국은 만날 먹어도 맛있었다.

나는 금세 한 바가지를 주워 놓고 얇은 물속에 당그랴게 떠올라 있는 당글 바위 위에 었드렸다. 뜨겁게 달궈졌다 알맞추 식은 바위는 어머니 등판 같았다. 눈을 감으면, ㉠ 이 세상에는 오로지 내 나쁜 몸뚱이와 강물 흐르는 소리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었지만, 내가 바위를 타고 떠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 나는 옛이야기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처럼 바위를 타고 떠내려갔다. 한없이, 한없이, 떠내려가다 보면, ㉢ 지느러미를 가진 사람 물고기들이 나타나 퍼덕거렸다. 그들은 사람 사는 땅이 너무 슬퍼서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가 된 종족이었다.

엄마가 올까.

그럼, 오지. 오고말고.

엄마가 올까.

그럼, 오지. 오고말고.

꿈속에서인 듯 ㉠ 찰방찰방, 찰박찰박, 물을 건너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올까.

그럼, 오지. 오고말고.

“거, 누고?”

목소리가 생생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떴다. 저 멀리, 아이를 업은 여자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옴마.”

“마침 잘 만났다. 우리 큰딸이 일 년 새, 마이 컷데이.”

어머니가 모래밭에서 포대기를 끌었다. 나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눈이 큰 아기가 나를 보고 방긋 웃었다.

“얼라가 순해 갖꼬 벨로 안 힘들 끼다.”

어머니가 둘째 딸을 데리러 저쪽 강변으로 갔다.

어머니는 결국 나타났고 나타날 것이었다. 나는 아기를 등개등개 흔들며 주었다.(중략)

그 강은, 이제, 없다. 층층한 물을 가둔 운문 댐이 있을 뿐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운문 댐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접근 불가의 대형 수족관 같은 곳이다.

-박정애, <내 유년의 강, 명포를 추억하며>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0점]

- ① ‘나’는 일 년 만에 외가인 명포에 갔다.
- ② ‘나’는 명포 물가에서 고디 잡기를 힘들어 하였다.
- ③ ‘나’는 당글 바위 위에 엮드려 엄마를 그리워하였다.
- ④ ‘나’는 막냇동생을 다시 만나 반가워하였다.

11. ㉠~㉣ 중 ‘나’의 의식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점]

- ① ㉠ ② ㉡ ③ ㉢ ④ ㉣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어린 시절의 체험이 현장감 있게 서술되었다.
- ② 회상하는 ‘나’와 체험하는 ‘나’가 모두 나타난다.
- ③ 인간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자연의 고유성을 표현하였다.
- ④ 상상 속에서 묻고 답하는 장면을 통해 어린 ‘나’의 심리를 추론할 수 있다.

13. 나 같은 사람에 대한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① 명포 강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
- ② 명포 강의 개발 과정을 지켜본 사람

- ③ 옛 명포 강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 ④ 명포 강과 관련된 추억을 간직한 사람

※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커피 열매)의 ㉡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열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 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짧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나)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술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질을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또는 돛자리를 펼쳐 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퍼센트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라)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퍼센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 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마)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데 이용된다.

[A]

(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에 꽃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roasting)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로스팅이란 생두를 12~20분간 섭씨 180~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 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사)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아홉 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0점]

- ① 생물학적 커피는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 ② 건식법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건조 방법이다.
- ③ 말린 체리는 선별하여 포대에 담아 사일로에 보관한다.
- ④ 커피 열매가 12.5퍼센트의 수분을 머금었을 때 수확한다.

15. ㉠~㉣ 중 지시 대상이 다른 하나는? [15점]

- ① ㉠ ② ㉡ ③ ㉢ ④ ㉣

16. (라)~(사)의 내용에 대한 정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라):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 ② (마): 건식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습식법보다 맛과 향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 ③ (바): 로스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가 완성된다.
- ④ (사): 로스팅 강도는 커피 원두의 색과 맛을 바꾼다.

17. 커피 가공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①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 ② 건식법으로 체리를 말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이다.
- ③ 커피 원두를 만들기 위해 생두를 섭씨 180~250도에서 볶는다.
- ④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 음료를 만든다.

18.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 ① 습식법 발전의 역사
- ② 습식법에 의한 건조 과정
- ③ 습식법 사용에 의한 환경 오염
- ④ 습식법에 의한 커피 가격 상승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읽고 즐기는 문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아마도 시·소설·수필·희곡 등 몇 가지 장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르들이 문학의 범주로 ㉠ 고정된 것은 적어도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문학이 성립된 이후의 일이다.

옛날에는 문학을 오늘날 서로 다른 분과 학문으로 갈라진 역사·철학·정치학 등과 완전히 구별하지 않았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이 저술한 책의 문구와 문체, 수사법 등은 그들의 세계관, 역사 인식, 정치 논리를 실어 나르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문인의 대부분을 지배해 왔다. 고대 서양의 그리스에서도 호머의 서사시에 녹아 있는 역사와 철학을 이성적인 차원으로 분리해 내기 위해 소크라테스 이후 여러 철학자의 비판적 노력이 필요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을 발표한 후 문학과 역사의 구별이 ㉡ 뚜렷해지면서 ‘허구적인 것’이 서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근대 이전까지 ‘문(文)’이 허구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시와 소설보다 우위에 자리하는 ‘학문’이었다.

우리가 요즘 ‘문학’이라는 범주 속에서 흔히 생각하는 장르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문학의 범주도 변화 속에서 새롭게 ㉣ 움직인다. 많은 사람이 문학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규범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문학에서도 생동하는 의식과 창조하는 정신은 현재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문학에 깃들여 있는 예술적인 속성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자유롭기를 요구한다. 현대 문학에서 개척한 새로운 지평들은 모두 그러한 예술적 속성에 지배된 작가들의 실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중략)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작가는 많은 것에서 배우고 영감을 얻는다. 예술가의 영혼은 자신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가 거기에 깃든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는 더욱 풍요로워져 왔던 것이다.

19.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점]

- ① 문학 장르의 유동성
- ② 동서양 문학의 차이
- ③ 근대 이전 문학의 특성
- ④ 근대 문학의 성립 과정

20. 근대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① 개념과 범주가 계속해서 변화한다.
- ② 시·소설·수필·희곡 등의 장르로 구분된다.
- ③ 역사·철학 등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 ④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것’을 주된 특성으로 삼는다.

21. ㉠~㉣에 사용된 문법적 요소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5점]

- ① ㉠ ② ㉡ ③ ㉢ ④ ㉣

※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우푼값 몇 백 원을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광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A와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말한다면,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A 소비자는 사과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1,5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의 덤을 경제 이론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말하며, A와 B 소비자 중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극장에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지불 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면,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22.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점]

- ① 지불한 금액
② 지불해 온 금액

- ③ 지불해야 하는 금액
- ④ 지불할 마음이 있는 금액

2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점]

- ①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 ② 지불 용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잉여가 커지기 때문에
- ③ 시장 가격이 독점적으로 형성되어 소비자 잉여가 커지기 때문에
- ④ 소비자 잉여를 줄이는 쪽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24. 다음 중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경우는? [15점]

- ① 3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매하지 않았다.
- ② 3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만 5천 원을 지불하였다.
- ③ 2만 5천 원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만 5천 원을 지불하였다.
- ④ 2만 5천 원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만 5천 원을 지불하였다.

※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 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퀘(櫓)를 노코 그 안에 ㉠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結縛)하여 너코 쌍비목* 결쇠*에 금(金)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관디 네 어이 그리 못 오던다*

㉠ 흔 히도 열두 들이오 흔 들 설흔 놀의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라

두지: 뒤주. 쌀 같은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

비목: 결쇠를 거는 구멍난 못.

결쇠: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으로 생긴 쇠.

수기수기: 깊이깊이.

오던다: 오더나.

흘리: 하루가.

-<어이 못 오던가>

(나)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

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㉔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

25.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과장된 표현이 해학성을 느끼게 하는군.
- ② '너'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자유로이 상상하고 있군.
- ③ '너'가 있는 공간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④ 처음에 주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수용자의 궁금증을 자아내는군.

26.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20점]

- ① 기다림도 사랑의 한 부분이다.
- ② 영원한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 ③ 차라리 홀로 하는 짝사랑이 아름답다.
- ④ 쉽게 이루어진 사랑은 쉬 사라지기 마련이다.

27.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㉑: 자꾸 떠나려는 입을 붙들어 두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㉒: 입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날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㉓: 입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④ ㉔: 계절의 변화로 자연스레 세월이 흘러갈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28. (가)와 (나)의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나)에 비해 (가)의 시적 화자는 직설적이고 적극적이다.
- ② (가)에 비해 (나)의 시적 화자가 더 긴 시간을 기다려 왔음이 분명하다.
- ③ (가)의 시적 화자는 초조함을 보이는 데 비해 (나)의 시적 화자는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
- ④ (가)의 시적 화자는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나)의 시적 화자는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예술적 주제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칼로는 평생 자신을 그리는 데 모든 열과 성을 바쳤고, 스스로를 모델로 삼아 끊임없이 관찰하고 표현했다. 자신이 자신에게 영감을 받는 예술가이자 모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칼로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도 자주 외롭고 또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이다.”

프리다 칼로는 진정 외로운 예술가였다. 칼로가 자신을 남과 다른 사람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여섯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부터이다. 다

른 아이들에게 ‘나무다리 프리다’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자신의 소외된 상(像)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남다른 총명함으로 의사가 되길 희망했고,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녀로 자랐다. 그러다 열여덟 살이 되던 해 더 큰 사고를 당한다. 타고 가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해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죽을 때까지 그녀를 괴롭힌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마음까지 심하게 부식시켰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칼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런 신체적인 한계만을 표현하고자 칼로가 자화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강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으며,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칼로는



「부상당한 사슴(나는 가련한 작은 사슴)」 (1946)

는 멕시코가 낳은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지만 디에고는 칼로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자들을 만났다. 칼로는 디에고에 대한 분노보다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곤 했다. 결국 그녀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2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0점]

- ① 프리다 칼로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 ② 프리다 칼로는 평생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 ③ 프리다 칼로가 결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다.
- ④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부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였다.

30. 윗글에서 프리다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15점]

- ①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기 위하여
- ② 육체적인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 ③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 ④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프리다 칼로 작품의 주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서사적 기법을 통해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수용자의 입장에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고 있다.
- ④ 프리다 칼로의 삶과 작품 세계가 연관된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의 대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란한다.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운데 인조는 청의 장수 용골대의 문서를 받게 된다.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꿰어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아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너희 신료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너희 군신이 그 좁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이조 판서 최명길은 헛기침으로 목청을 끌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 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운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관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운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

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향(降)이요.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관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A]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本)이고 화가 말(末)이며 수는 실(實)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게 부응하고, 전하게서 실덕(失德)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헌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안에서 어찌 ㉠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김훈, <남한산성>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점]

- ①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말을 통해 대립적인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긴박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작가의 해석과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33. 윗글의 인물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5점]

- ① ‘용골대’는 자신의 본뜻을 숨기고 상대를 높이는 전략을 쓰는군.
- ② ‘김상헌’은 진정성 없이 논리와 명분만을 추구하는 말을 하고 있어.
- ③ ‘인조’는 신하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으며 왕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최명길’은 대화 상대와 타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어.

3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점]

- ① 자신감을 갖고 적과 맞서게 하기 위해 임금을 독려하고 있다.
- ② 적과의 화친보다는 전투를 통해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본말(本末)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투에 앞서 상대의 전력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35. ㉠과 ㉡에 대한 풀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5점]

- | ㉠ | ㉡ |
|----------|--------|
| ① 적과의 협상 | 말뿐인 명분 |
| ② 적과의 협상 | 불의한 명분 |
| ③ 화친의 거부 | 말뿐인 명분 |
| ④ 화친의 거부 | 불의한 명분 |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필기고사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독서, 문학 범위 내에서 35문항을 객관식 4지선다형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어 교과와 합하여 100분 이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문학, 문법, 독서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로 구성하였으며, 독해 능력은 물론,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 독서, 문학 교과서 내에서 발췌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관련 성취기준	성취기준1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문항 1
	성취기준2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문항 2 문항 21
	성취기준3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문항 3 문항 4 문항 5
	성취기준4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문항 7
	성취기준5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문항 13 문항 26
	성취기준6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25
	성취기준7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항 27 문항 35

적용 교육과정	독서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6 문항 9 문항 14 문항 15 문항 16 문항 17 문항 19 문항 20 문항 29
	성취기준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8
	성취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항 18 문항 22 문항 23 문항 24 문항 31
성취기준4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30	

적용 교육과정	문학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문항 10 문항 34
	성취기준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문항 11 문항 28 문항 33
	성취기준3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항 12
성취기준4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항 32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8	140	문제1	×
고등학교 국어	박안수 외	비상	2018	258	문제2	×
고등학교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68	문제3-5	○
고등학교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18	268	문제5	×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8	문제6-9	×
고등학교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9	280	문제10-13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146	문제14-18	○
고등학교 문학	류수열 외	금성	2019	286	문제19-21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146	문제22-24	×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96	문제25-28	×
고등학교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06	문제25-28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110	문제29-31	×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126	문제32-35	○

5. 문항 해설

1번 문항은 한글 맞춤법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번 문항은 높임법과 같은 문법 요소의 형식적인 특성을 아는 것과 더불어 실제 담화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5번 문항은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8번 문항은 사랑과 관련된 뇌과학 연구를 소개한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9번 문항은 ‘빠지다’의 용법을 물음으로써 단어의 어휘적,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0~13번 문항은 수필인 <내 유년의 강, 명포를 추억하며>를 바탕으로 서술자의 정서 및 심리를 이해하고, 작품을 공감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4~18번 문항은 커피의 가공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 글의 논리적 구조 파악, 중심 내용 요약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9~20번 문항은 문학 장르의 유동성을 설명한 지문을 바탕으로, 주제 파악, 중심 소재의 특성 분석, 내용 요소 간 비교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1번 문항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루는 다양한 피동 표현의 용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2번~24번 문항은 소비자 잉여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5번~28번 문항은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시적 화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설시조와 현대시를 엮은 지문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과 감상 능력 및 두 작품을 엮어 읽으며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9번~31번 문항은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한 예술 분야의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 중심 내용 요약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2번~35번 문항은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역사 소설을 바탕으로, 소설의 특성, 등장 인물 성격 파악, 감상적 독해, 대화 맥락 분석, 문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 등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모두 선다형으로, 해당 사항 없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항번호	정답
1	2
2	3
3	2
4	2
5	4
6	4
7	3
8	4
9	1
10	3
11	4
12	3
13	2
14	1
15	3
16	2
17	2
18	2
19	1
20	3

문항번호	정답
21	4
22	4
23	1
24	2
25	4
26	1
27	1
28	2
29	3
30	2
31	3
32	3
33	4
34	4
35	1

[문항카드 3 - 재외국민과외국인(KU재외국민과외국인)_수학(자연계)]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수학) / 문제 1 ~ 25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약 50분	

2.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중 $x^4 + 64$ 의 인수인 것은? [10점]

- ① $x^2 - 8$ ② $x^2 + 8$ ③ $x^2 - 4x - 8$ ④ $x^2 - 4x + 8$

2. 부등식 $2^{x-7} < 25^{\log_5 4}$ 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의 개수는? [10점]

- ① 7 ② 8 ③ 9 ④ 10

3. 세 집합 A, B, C 에 대해 $(A \cup B) \cap C \subset B^c$ 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10점]

- ① $B \cap C = \emptyset$
 ② $A \cap B \cap C = \emptyset$
 ③ $(A \cup B) \cap C \subset A$
 ④ $(A \cap C) - (B \cap C) \subset A$

4. 방정식 $2x^2 - 2x + 1 = 0$ 의 두 근을 α, β 라고 할 때, $\alpha^{101} + \beta^{101}$ 의 값은? (단, $i = \sqrt{-1}$) [20점]

- ① $\frac{1}{2^{50}}$ ② $\frac{i}{2^{50}}$ ③ $-\frac{1}{2^{50}}$ ④ $-\frac{i}{2^{50}}$

5. 좌표평면에 놓인 삼각형 ABC에서 $\angle A$ 가 직각이고 점 A의 좌표는 (5,2),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3,0)이다. 선분 BC의 길이는? [20점]

- ① $3\sqrt{2}$ ② $4\sqrt{2}$ ③ $5\sqrt{2}$ ④ $6\sqrt{2}$

6. 좌표평면의 직선 l 의 x 절편 a 와 y 절편 b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모두 성립할 때, 양수 b 의 범위는? [20점]

(가) $a \geq 10$
 (나) 원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sqrt{2}$ 이다.

- ① $0 < b \leq \frac{5}{7}$ ② $0 < b \leq \frac{10}{7}$ ③ $\sqrt{2} < b \leq \frac{10}{7}$ ④ $b \geq \frac{10}{7}$

7. 기울기가 -2 인 직선 l_1 과 l_2 는 각각 1사분면에서 원 $x^2 + y^2 = 1$ 과 곡선 $y = (x-3)^2$ 에 접한다. 두 직선 l_1 과 l_2 사이의 거리는? [20점]

- ① $\frac{\sqrt{5}-1}{2}$ ② $\sqrt{5}-1$ ③ $\frac{\sqrt{5}+1}{2}$ ④ $\sqrt{5}+1$

8. 각 면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세 번 던졌을 때 윗면에 적힌 수를 각각 a, b, c 라 하자. 다음 중 r 이기 위한 충분조건인 것은? [20점]

p : abc 는 15의 배수이다.
 q : $(a-b)(b-c)(c-a) = 0$
 r : $(a-1)(b-1)(c-1) = 0$

- ① p 이고 q 이다. ② p 또는 q 이다.
 ③ p 이고 $\sim q$ 이다. ④ p 또는 $\sim q$ 이다.

9. 집합 $A = \{1, 2, 3, 4, 5\}$ 에서 정의된 함수 $f: A \rightarrow A$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20점]

(가) 합성함수 $f \circ f$ 는 일대일대응이다.
 (나) $\{x \mid (f \circ f)(x) = x\} = \{1, 2\}$

- ① 2 ② 4 ③ 6 ④ 8

10. 문자 a, b, c, d, e, f 를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 다음에 바로 문자 b 가 나오거나 문자 b 다음에 바로 문자 c 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예를 들어, $cdabfe$ 또는 $afdbce$ 는 조건을 만족하고, $adbecf$ 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20점]

- ① 216 ② 220 ③ 224 ④ 228

11.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된 11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의 3명을 뽑을 때, 남학생 1명 이상, 여학생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20점]

- ① 125 ② 135 ③ 145 ④ 155

12. 정의역이 $x > a$ 인 함수 $f(x) = \log_2(x-a) + b$ 의 역함수의 그래프 $y = f^{-1}(x)$ 의 점근선은 $y = -2$ 이고, $y = f(x)$ 의 그래프와 $y = f^{-1}(x)$ 의 그래프는 (6,6)에서 만난다. $f^{-1}(3)$ 의 값은? [20점]

- ① -2 ② -1 ③ 1 ④ 2

13. $\{x \mid x = 8n, n \text{은 정수}\}$ 가 아닌 모든 실수 x 에서 정의되는 함수 $f(x) = \tan(ax+b)$ 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b 의 값은? (단, $-\frac{\pi}{2} \leq b \leq \frac{\pi}{2}$) [20점]

(가) 정의역의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8)$ 이다.
 (나) $f(2) = 1$

- ① $-\frac{\pi}{2}$ ② $-\frac{\pi}{4}$ ③ $\frac{\pi}{4}$ ④ $\frac{\pi}{2}$

14.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0점]

(가) $\sin A = \sqrt{2} \sin C$
 (나) $\overline{AB} = 1$
 (다) $\overline{BC}^2 = \overline{AC}$

- ① $\frac{\sqrt{7}}{8}$ ② $\frac{\sqrt{7}}{4}$ ③ $\frac{3\sqrt{7}}{8}$ ④ $\frac{3\sqrt{7}}{4}$

15. 원 $x^2 + y^2 = 1$ 위의 점 P, 원점 O, 점 A(-2,0), 점 B(3,0)에 대하여 $\angle POB = \theta$ 라 하자. $\overline{AP} \times \overline{BP}$ 가 최대가 될 때 $\cos \theta$ 의 값은? [20점]

- ① $\frac{5}{24}$ ② $\frac{7}{24}$ ③ $\frac{3}{8}$ ④ $\frac{11}{24}$

16. 등비수열 $\{a_n\}$ 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라 하자. $\frac{S_4}{S_2} = 10$ 일 때 $\frac{S_8}{S_2}$ 의 값은? [20점]

- ① 810 ② 820 ③ 830 ④ 840

17.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3인 원과 점 $(x,0)$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f(x)$ 라 할 때,

$\lim_{x \rightarrow 0} \frac{f(x)}{x^2}$ 의 값은? [20점]

- ① $\frac{1}{6}$ ② $\frac{1}{7}$ ③ $\frac{1}{8}$ ④ $\frac{1}{9}$

18.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삼차다항식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의 값은? [20점]

$$\lim_{h \rightarrow 0} \frac{f(x + \frac{h}{3})f(h) - f(x)f(h)}{h^2} = x^2 + x + \frac{1}{3}$$

- ① $\frac{3}{2}$ ② $\frac{5}{2}$ ③ $\frac{7}{2}$ ④ $\frac{9}{2}$

19.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 이다.
 (나) $\int_0^3 f(x)dx = 5$

정적분 $\int_{-3}^3 (2x^3 + x + 4)f(x)dx$ 의 값은? [20점]

- ① 20 ② 30 ③ 40 ④ 50

20.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0)$ 의 값은? [20점]

(가) $\int \{f'(x)\}^2 dx = \int (4x - 3)f'(x) dx + C$ (C 는 적분상수)
 (나) $\int_0^1 f(x)dx = 1$

- ① $\frac{7}{6}$ ② $\frac{3}{2}$ ③ $\frac{11}{6}$ ④ $\frac{13}{6}$

21.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의 값은? [20점]

$$\int_1^x (x-t)f(t)dt = x^3 - 4x^2 + 5x - 2$$

- ① 1 ② 2 ③ 3 ④ 4

22.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에서의 속도가 $v(t) = -3t^2 + 12t$ 일 때 시각 $t = 2$ 에서 $t = 5$ 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20점]

- ① 9 ② 16 ③ 23 ④ 30

23. 점 $(2,3)$ 를 지나면서 곡선 $y = x^2$ 에 접하는 두 접선과 곡선 $y = x^2$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30점]

- ① $\frac{1}{3}$ ② $\frac{2}{3}$ ③ 1 ④ $\frac{4}{3}$

24. $a_1 = 1$ 이고 $a_{10} - a_5 = 15$ 를 만족하는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수열 $\{b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b_n = 1 - \frac{a_n}{a_{n+1}}$ 을 만족시킬 때, $\sum_{k=1}^{10} b_k b_{k+1}$ 의 값은?

[30점]

- ① $\frac{45}{68}$ ② $\frac{49}{68}$ ③ $\frac{53}{68}$ ④ $\frac{57}{68}$

25. 함수 $f(x) = x^3 - x^2 - x$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의 최솟값은? [30점]

$$\frac{f(a) - f(-2)}{a - (-2)} = f'(c) \text{인 } c \text{가 닫힌구간 } [-2, a] \text{ 안에 두 개 존재한다.}$$

- ① $\frac{3}{2}$ ② $\frac{5}{2}$ ③ $\frac{7}{2}$ ④ $\frac{9}{2}$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문제는 정규 대학 이공계열 학과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 중 수학, 수학 I, 수학 II에서 습득해야 할 개념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과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번 전형의 수학 필기고사는 다항식, 평면도형, 집합, 함수, 경우의 수, 지수와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 도함수,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교육부 고시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수학01-04]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2. [12수학I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3. [10수학03-02]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4. [10수학01-05]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5. [10수학02-02] 선분의 내분과 외분을 이해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6. [10수학04-04] 유리함수 $\frac{ax+b}{cx+d}$ 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7.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8. [10수학03-06]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 9. [10수학04-0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10. [10수학05-02]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1.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2. [12수학I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3. [12수학I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4. [12수학I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5. [12수학I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6. [12수학I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7. [12수학II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18. [12수학II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9. [12수학II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20. [12수학II03-01] 부정적분의 뜻을 안다. 21. [12수학II03-02]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을 알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22. [12수학II02-11]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3. [12수학II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4. [12수학I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25. [12미적02-11]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최부림 외	천재교육	2018	
	수학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8	
기타	수학II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18	

5. 문항 해설

1.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기.
2. 지수와 로그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등식 풀기.
3.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해하기.
4.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이용해 계산하기.
5.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기.
6.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범위를 구하기.
7. 점과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기.
8. 충분조건 개념을 이해하기.
9. 함수의 개념과 일대일 대응 조건을 파악하기.
10. 순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 계산.
11.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계산.
12. 로그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13. 삼각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14. 삼각비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이용해 삼각형을 풀기.
15.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계산하기.
16.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17. 극한의 개념을 이용한 계산.
18. 미분계수의 의미를 이용한 풀이.
19.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기.
20. 부정적분의 정의를 이해하여 다항식을 구하기.
21. 다항함수의 적분과 미분을 계산하기.
22.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적분을 이용해 해결하기.
23. 정적분을 이용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24.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25. 미분을 이용해 접선을 구하기.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모두 선다형으로, 해당 사항 없음

▶ 논술(KU논술우수자)

[문항카드 4 - 논술(KU논술우수자)_인문]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문제1, 문제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타자 지향성, 사회적 소수자, 여닫개, 수용체, 신경전달물질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의 ‘타자 지향성’과 [다]의 ‘여닫개’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가]

레비나스는 1906년에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난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는 유대주의, 러시아 문학, 프랑스 문화,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기 위하여 전체주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빵, 자기 빵 한 입을 주는 것,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대문을 여는 것”이라며 ‘타자 지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인간적 삶에 대한 것이자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당위적 해결책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타자에 대해 책임지고 타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끌어 내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과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바탕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 말씨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다]

평상시 신경 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 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하가 커지게 되어 신경 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신경 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신경 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 대표적이다.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닫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닫개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그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닫개에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이 발생한다.



▲ 소포체에서 연접 틈으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이온 통로가 열리고, 신경 정보가 전달된다.

*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 고등학교 『독서』

[라]

※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새로 이사 온 집 마당에 있는 흰 철쭉의 자태에 감동한다. 그리고 이사 온 지 삼 년째 되던 해 봄에 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모셔 사연을 들어 보기로 한다.

“아주머니는 아마 전부터 이 동네에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지요?”

나물거리를 대강 사 챙겨 주고 나서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피 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하고 보니 일은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이 동네 길만 익을라구요. 한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엔 다른 집이 있었다오.”

아주머니는 금세 눈치를 알아채고 한숨 끝에 천천히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 안악 마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새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랬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한데 어느 해부터인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황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너나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몹쓸 땅값 바람에 멋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요.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그래 아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철쭉이나 따로 파 옮겨다 심지 그랬느냐고, 짐짓 한 마디 어긋나게 묻고 들자, 아주머니는 다시 북쪽 말 억양이 역력한 소리로,

“글쎄, 그때 그릴 경향도 없었다우. 그때 어찌 그리 쫓기듯이 거래를 서둘러들 대던지 나무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켜 나가 줘야 했을 형편이었으니까유.”

변명이라도 하듯 한숨 섞어 말하고는 새삼 꽃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흰 철쭉이 거기 남아 있게 된 것은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연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 일 저 일로 거의 다 축내 버리고, 종내는 아들 내외와 성남 변두리에 셋방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꿈에서도 그토록 꽃빛이 희고 탐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집터도 물론 내가 살아오던 옛날 집이었구…… 꿈을 깨고 나니 꽃이 필 철이더구만유. 그래 아무래도 무심할 수가 없어 나물 장살 핑계 삼아 꽃을 보러 왔었지유. 찾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담 너머로 꽃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구만유.”

(중략)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흰 철쭉꽃은 그녀의 고향의 모습이자 친정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주머니는 철쭉으로 고향을 만나고 그 어머니를 대신 만나 온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친정어머니가 행여 이남으로 넘어와 어디에 살아 있다면 그 어머니는 철

쪽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라면 다른 친척이나 고향 사람이라도 당부를 가지고 넘어와 있을 수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지만, 집을 옮겨 간 뒤에라도 누가 행여 철쭉의 기억을 찾아 나타날지 몰랐다. 철쭉은 다른 데로 옮겨 갈 수가 없었다. 그때의 사정이 정말이었거나 말거나, 아주머니의 기다림이 지쳐 망단*을 했거나 말거나, 나무를 옮겨 가지 못할 진짜 사연은 그 때문이었다. 아주머니가 봄마다 꽃 꿈을 꾸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 꽃으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거기서 친정의 무고*를 믿고 싶은 애절한 기원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든 안 했든 그녀는 그 때문에 나무를 옮겨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나무는 언제까지나 거기 남아 있어야 하였다. 거기서 끝끝내 기다리고 있어야 하였다.

아내나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무를 옮겨 가도 좋다는 아내의 제안은 그러니까 그저 자기 진심에 겨운 위로의 말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나 나보다도 나무를 옮겨 갈 수 없음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아주머니 자신이었다. 그녀는 물론 아내의 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댁의 마음썬 고맙기 그지없지만, 그건 나무한테 공연한 짓일 게우. 이젠 벌써 30여 년을 저 자리에서 꽃을 피워왔고, 닥네들도 계속 좋은 꽃을 피우게 보살펴 왔는데, 새삼스레 자리는 옮겨 가 뭐하겠수.”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아내의 제의를 사양했다. 그 대신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 나무가 계속 꽃을 잘 피워 주고 있는 것만 보고 가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아내나 나는 물론 그 아주머니를 굳이 더 권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 조그맣고 애절한 아주머니의 소망을 거절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1년에 한 번씩 봄철에 찾아와서 꽃이 잘 피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해 달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그만큼 나무를 잘 보살펴 달라는 당부 뜻이 포함된 말이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녀의 당부가 아니라 스스로 똑같은 마음의 다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해에도 5월로 접어들자 철쭉은 어김없이 흰 꽃을 만발했고, 아주머니도 때맞춰 나물 광주리를 이고 동네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물론 집 앞 길거리에 전을 펴고 앉아서 나물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머니는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물 광주리를 몽땅 비워 내놓았다.

“도회지 사람들한테 열 푼어치도 안 되어 반가울 게 없겠지만……. 산에서 손수 뜯어 온 것이니 남는 건 이웃 간에 인심이나 나누라구요.”

선물인 양 공짜로 나물거리를 비워 주고는 한나절 망연스레* 꽃을 보고 앉았다가 안심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몇 푼 안 되는 나물값이나 점심 요기마저 한사코 거절을 한 채였다. 기다림이 이미 끝난 때문이었을까. 그새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혀 실망을 하는 빛이 없이 오직 그 화사한 흰 철쭉꽃으로 그간의 시름이 덜어진 얼굴로.

이듬해에도 또 그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오륙 년 동안 빠짐없이 봄마다 옛 동네로 꽃을 보러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 집에 깨끗한 산나물을 꽃 값으로 선물하고 꽃을 보고 안심스레 오던 길을 돌아갔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연례행사이자 숙젓거리가 되어 버리고 있었다. 아주머니의 당부도 당부였지만, 우리는 갈수록 철쭉의 생육 상태에 마음이 쓰이고 있었다. 나무에 어떤 병충해라도 끼지 않을까, 거름이 부족하거나 넘치지는 않을까, 겨울철 추위에 동해를 입지나 않을까…… 봄이 되면 꽃이 제대로 피어 줄지 어떨지 지레 조바심이 쳐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다 예년처럼 제대로 꽃이 피고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안심을 하고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한 해의 숙제를 무사히 끝낸 것처럼 마음이 한참 흥분해지곤 하였다.

- * 망단(望斷): 어떤 바라던 일이 실패함.
- * 무고(無故): 사고 없이 평안함.
- * 망연스레: 아무 생각 없이 멍한 데가 있게.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의 인문 1번 문항은 국어와 사회 교과서에서 추출한 지문과 도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들이 지문의 핵심 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와 의미를 압축적으로 포함하는 도표라는 특수한 언어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문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수험생들은 도표와 글이라는 다른 양식의 언어적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 및 취지상의 유기적 관련성을 간파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 의식을 포착하여 이를 600자 이내의 간명한 글로 서술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인문 2번 문항은 개념 지문 [가], [다]와의 연관 속에 소설 지문(라)에 나타난 인간관계를 분석하게 한 것으로, [가], [다]에 서술된 핵심 개념의 논리적 연결성 파악을 기반으로 이를 소설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문 [다]는 인문·사회가 아닌 과학 분야의 글로서 신경 세포를 매개로 하는 생명 현상의 한 단면을 미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여 소설 속에서 섬세하게 형상화된 심리 중심의 인간관계 양상과 연결시키도록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를 통해 겉으로 보기에 상호 연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각기 다른 분야의 글에서, 표상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핵심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인문 1, 2번 문항은 이해력, 추론 능력, 표현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의 측정에 더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험생들이 현대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그것이 촉발할 수 있는 개인의 소외와 불행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지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이번 논술고사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2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3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4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문제1, 문제2 [가]
성취기준 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가]
성취기준 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2
성취기준 4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가], [나]
성취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2 [가], [다], [라]
성취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5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6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7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성취기준 8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문제2
성취기준 2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제2
성취기준 3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2

성취기준 4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제2
성취기준 5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2
성취기준 6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제2
성취기준 7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2 [라]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2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3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4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문제1
성취기준 5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문제1
성취기준 6	[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1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문제1
성취기준 2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문제1
성취기준 3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1
성취기준 4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문제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1
성취기준 2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문제1
성취기준 3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1

성취기준 4	[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문제1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기준 1	[12한지06-03]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한다.	문제1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2	[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1, 문제 2
성취기준 3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과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문제1 [나]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 2	[12생윤06-02]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문제1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정영순 외	(주)교학사	2020	146쪽	[가]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Mirae N	2020	122쪽	[나]	○
독서	서혁 외	좋은책신사고	2020	56-57쪽	[다]	×
국어	김동환 외	(주)교학사	2020	347-351쪽	[라]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 도	쪽 수	관련 자 료	재구성 여부

5. 문항 해설

● 문제 1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인문 1번 문항은 지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 [나]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 지문이 말하는 타자 지향성이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나는 <남북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말을 ‘강하거나 세다.’,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딱딱하다.’ 등과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역시 남한 말에 대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빈말,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도표는 남한 사람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를 분석하기 위해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적용할 때 어느 한쪽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 양쪽 모두가 서로를 낮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요건이 된다.

다만, [나]의 우측 도표(2.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느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응답에서는 객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4점 척도 중 3.2점에 해당하는 두 응답)과 부정적인 인식(4점 척도 중 2.7에 해당하는 두 응답) 사이에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좌측 도표(1.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연상 이미지는?)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 사람들이 연상하는 북한 말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응답(강하거나 세다, 낮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딱딱하다)이 약 60%에 달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 또는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사이의 차이가 2번 도표에서 보다 1번 도표에서 더 크다는 점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7명은 그들의 말씨 때문에 구직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차별을 경험한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에 기술된 타자 지향성 개념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 즉 존중과 환대의 의무와 연결된다고 하였을 때, [나]의 자료는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가]의 요지를 근거로 삼아 [나]의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안 작성의 관건이다.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적용할 때 남북 상호 간 태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의 윤리적 책임만을 강조하여 전체적인 답안 내용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존중과 환대의 논의에 치우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 문제 2

2026학년도 논술고사 인문 2번 문항은 개념 지문 [가], [다]와의 연관 속에 소설 지문 [라]에 나타난 인간관계를 분석하게 한 것으로, 개념의 논리적 연결을 통한 통합적 사고능력 발현을 주요 평가요소로 삼았다. [다]는 인문사회가 아닌 과학 분야의 글로 신경 세포 사이에 펼쳐지는 생명 현상을 미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대작가의 명작 소설에 섬세하게 형상화된 심리 중심의 인간관계 양상과 연결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의 ‘타자 지향성’과 [다]의 ‘여닫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문 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두 개념의 의미내용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의 ‘여닫개’가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개체 간의 소통적 연결 체계를 뜻하는 비유어로 쓰였다는 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 지점에서 변별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청준 소설 <흰 철쭉>의 일부인 [라]에서는 철쭉꽃이 현재의 집 주인인 ‘나’ 부부와 이전 주인인 이산가족 아주머니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물 구실을 한다. 이때 양자의 연결에는 부부가 발현하는 ‘타자 지향성’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철쭉꽃을 유심히 보는 낮선 아주머니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나물을 산다는 명목으로 집안으로 들인 뒤 사연을 물어보는 행위가 그것이다.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해당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대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아주머니가 부부의 환대에 부응해서 철쭉꽃에 얽힌 사연과 심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에서 말하는 ‘여닫개’의 기능이 온전히 작용해 서로 간의 소통적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때 아주머니가 발화하는 그리움의 언어가 [다]의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하고, 거기 공감하는 부부의 마음이 ‘수용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넓게 보면 그 관계에서 흰 철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신경 전달 물질보다는 여닫개에 해당하는 소통적 연결 체계를 활성화하는 미적(美的) 매개물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만약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서 서술했다면 높은 수준의 이해력 점수를 줄 만하다.

[가]의 ‘타자 지향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그것이 단지 ‘마음 쓰기’가 아닌 ‘실천적 행위’ 중심으로 제시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환대’와 ‘책임’이라는 적극적 몸짓이다. ‘빵을 주는 것’이나 ‘지갑을 여는 것’, ‘대문을 여는 것’ 같은 행동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의 주인 부부는 아주머니에게 나물을 사고 대문을 여는 일 외에 그녀와 한마음이 되어 꽃을 열심히 가꾸고 돌보는 일을 행하고 있는바, 이는 이들의 타자 지향성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라는 인간주의적 실천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지점을 제대로 짚어냈을 때 ‘타자 지향성’ 개념의 활용이 오롯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의 ‘여닫개’와 [라]의 인간관계 양상을 연결함에 있어 한 가지 눈여겨볼 요소는 ‘항상성’이다. [다]는 신경세포들의 여닫음 관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 균형에 입각한 항상성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를 살펴보면, 부부라는 개체와 아주머니라는 개체 사이에 주고받음의 균형이 원만하게 성립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철쭉꽃을 개간다거나 수시로 집에 찾아오는 등의 과도한 방식 대신 아주머니는 1년에 한 번만 찾아와서 마음껏 꽃을 보고 부부는 꽃을 정성껏 돌본다고 하는 형태의

균형적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들은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를 다년간 지속하게 됐다고 할 만하다. 부부가 꽃을 가꾸는 일을 불필요한 부담이나 의무로 여겼다면 불균형이 되겠으나, 작품은 그것이 부부에게 열의와 보람의 시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주머니와의 내적 연결을 통한 관계 확장이 의미 있는 자기실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주머니가 정성을 담아서 챙겨오는 산나물이 그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항상성을 보조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면 방금 말한바 ‘항상성’이라는 키워드로 [대]와 [라]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문제에서 항상성에 대한 논의를 따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를 기본 평가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와 [라]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낼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 만약 수험생이 이 부분을 잘 짚어내서 논의를 완성했다면 추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 문제 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1]은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설명하는 [가]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나]의 ‘1.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2.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영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가]의 핵심 내용 이해와 [나]에 대한 적용</td> <td> <p>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타자 지향성은 윤리적 주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도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문에 서술된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p> </td> </tr> <tr> <td> <p>② [나]의 분석을 위해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에 적용하고 있는가?</p> <p>[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의 상대방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다룬 [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할 때 양쪽 모두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나]의 두 도표로부터 이러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p> </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나] 도표의 내용 이해, 그리고 [가]와 [나]의 유기적 연결성</td> <td> <p>③ [나]에 제시된 두 도표 각각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가?</p> <p>1번 도표는 북한 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하거나 세다’,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딱딱하다’ 등, 응답자의 약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도표는 남한 말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빈말,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등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에서 3.2점에 해당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p> </td> </tr> <tr> <td> <p>④ [나]의 두 도표 간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가?</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의 핵심 내용 이해와 [나]에 대한 적용	<p>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타자 지향성은 윤리적 주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도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문에 서술된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p>	<p>② [나]의 분석을 위해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에 적용하고 있는가?</p> <p>[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의 상대방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다룬 [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할 때 양쪽 모두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나]의 두 도표로부터 이러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p>	[나] 도표의 내용 이해, 그리고 [가]와 [나]의 유기적 연결성	<p>③ [나]에 제시된 두 도표 각각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가?</p> <p>1번 도표는 북한 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하거나 세다’,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딱딱하다’ 등, 응답자의 약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도표는 남한 말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빈말,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등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에서 3.2점에 해당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p>	<p>④ [나]의 두 도표 간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가?</p>	4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의 핵심 내용 이해와 [나]에 대한 적용	<p>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타자 지향성은 윤리적 주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도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문에 서술된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p>									
	<p>② [나]의 분석을 위해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에 적용하고 있는가?</p> <p>[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의 상대방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다룬 [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할 때 양쪽 모두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나]의 두 도표로부터 이러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p>									
[나] 도표의 내용 이해, 그리고 [가]와 [나]의 유기적 연결성	<p>③ [나]에 제시된 두 도표 각각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가?</p> <p>1번 도표는 북한 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하거나 세다’,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딱딱하다’ 등, 응답자의 약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도표는 남한 말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빈말,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등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에서 3.2점에 해당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p>									
	<p>④ [나]의 두 도표 간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가?</p>									

	<p>[나]에 진술된 바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의 10명 중 7명은 말씨로 인해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두 도표 각각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혹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식 사이의 차이가 2번 도표에서보다 1번 도표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다루는 것이 좋은 답안의 요건이 된다.</p>
<p>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p>	<p>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문제 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2]는 [가]와 [다]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간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 2] 답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영역</th> <th>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p>문제에 적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가], [다] 지문의 정확한 이해</p> </td> <td> <p>① [가] ‘타자 지향성’의 개념과 속성, 맥락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가]의 ‘타자 지향성’이 타자에 대한 소극적 배려나 마음 쓰기를 넘어서 환대와 책임의 윤리적 실천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p> </td> </tr> <tr> <td> <p>② [다] ‘여닫개’의 개념과 성격, 의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p>문제에 적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가], [다] 지문의 정확한 이해</p>	<p>① [가] ‘타자 지향성’의 개념과 속성, 맥락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가]의 ‘타자 지향성’이 타자에 대한 소극적 배려나 마음 쓰기를 넘어서 환대와 책임의 윤리적 실천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p>	<p>② [다] ‘여닫개’의 개념과 성격, 의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p>	6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p>문제에 적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가], [다] 지문의 정확한 이해</p>	<p>① [가] ‘타자 지향성’의 개념과 속성, 맥락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p> <p>[가]의 ‘타자 지향성’이 타자에 대한 소극적 배려나 마음 쓰기를 넘어서 환대와 책임의 윤리적 실천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p>						
	<p>② [다] ‘여닫개’의 개념과 성격, 의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p>						

	<p>[다]의 ‘여닫개’가 단순한 도구나 물리적 장치가 아닌 ‘개체와 개체 사이의 만남과 접속, 소통과 연결의 체계’를 뜻하는 비유적 개념으로, 개체 사이의 내적 상호작용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p>
<p>[가], [다]의 내용과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의 적절한 연결을 통한 깊이 있고 정합적인 논지 구성</p>	<p>③ [가]-[라] 지문의 바른 연계를 통한 논지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p> <p>[가]에서 말하는바 관계적 윤리의 적극적 실천으로서의 타자 지향성이 [라]에서 ‘나’ 부부가 아주머니를 환대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 공감하며 해마다 철쭉꽃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성껏 철쭉을 가꾸는 행위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적절히 연계하여 논지를 구성했는가?</p>
	<p>④ [다]-[라] 지문의 바른 연계를 통한 논지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p> <p>[다]에서 ‘여닫개’ 개념으로 설명한바 개체(신경세포)와 개체 사이의 접속과 연결이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라]에서 아주머니가 부부의 배려에 적극 응답해서 철쭉에 얽힌 애절한 그리움의 언어를 발화하고 이를 부부가 공감의 마음과 동정의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상호간 내적 연결을 성취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적절히 연계하여 논지를 구성하였는가?</p> <p>※ 추가점 요소 : [다]에서 정상적인 여닫개의 특징적 현상으로 설명한 ‘항상성’이 [라]에서 인물간 관계의 균형적 조화를 통한 안정적 지속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짚어내서 답안에 잘 반영한 경우 추가 점수 부여.</p>
<p>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p>	<p>⑤ 위의 여러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고 정합적으로 연결하여 논지를 매끄럽게 전개함으로써 글 전체가 논술문다운 안정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아울러,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사항 모두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 문제 1

[가]에서 레비나스는 윤리적 주체인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과 환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의 상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다룬 자료 [나]는 양쪽 모두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한 사람들은 북한 말에 대해 강하고 낮설며 이질감이 든다고 생각하고,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 외래어와 비속어를 많이 쓴다고 인식한다. 다만, 긍정적 혹은 객관적 응답(3.2/4)과 부정적 응답(2.7/4)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북한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 응답자의 60%에 달하는 남한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은 그들의 말씨로 인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타자 지향성이 필요하다. [564재]

● 문제 2

[가]의 '타자 지향성'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개념이며, [다]의 '여닫개'는 개체와 개체 간의 만남과 연결 체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윤리적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환대와 책임을 강조하며, '여닫개'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적 접촉 과정과 개체간 연결의 항상성이 중시된다.

[라]는 '나' 부부가 이산가족 아주머니와 흰 철쭉을 매개로 소통과 연결을 이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출발은 자기 집에 피어난 흰 철쭉을 유심하게 바라보는 낮선 아주머니에 대한 부부의 관심과 말 걸기였다. 그를 통해 흰 철쭉에 얽힌 특별한 사연을 전해 들으면서 부부는 사연의 주인공인 아주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수용하게 되며, 이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연결을 통한 관계 확장으로 이어진다. [다]와 관련해서 보자면, 독립 개체로서 부부의 관심과 동정심이 일종의 수용체가 되어 또 다른 개체인 아주머니가 방출한 그리움의 언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접촉과 연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닫개'의 상호작용적 소통 기능이 온전히 작동한 상황이다. '연접 틈'에 흰 철쭉이라는 미적 매개물이 있었고, 산나물이 보조적 연결고리 구실을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주목할 것은 '나' 부부의 적극적인 타자 지향적 태도다. 양자간 연결이 가능했던 출발점은 부부가 아주머니의 모습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지갑을 열어서 나물을 사고, 대문을 열고 맞이하여 사연을 물어본 행동이었다. 레비나스가 말한바 타자 지향성의 실천적 발현이다. 아주머니가 그 환대에 부응하여 내면을 토로하고 부부가 거기 공감함으로써 내적 연결이 성취된 상황이다. 아주머니는 철쭉꽃을 파가는 대신 1년에 한 번만 꽃을 보러 오고 부부는 꽃을 잘 돌본다고 하는 협력적인 조화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안정적 지속의 항상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인간관계가 점점 형식화돼 가는 현대사회에서 타인과의 아름다운 공생을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할지를 유의미하게 성찰할 수 있다.

[문항카드 5 - 논술(KU논술우수자)_통합(국어)]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통합/문제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산업화, 개인주의, 사회 공동체, 사이 공간, 집단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50점]

[가]

전통 사회는 제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이 강조되었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 중시되었다. 이후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인간관계의 양상이 변하였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퍼진 것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침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 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중략)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 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중략)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훌까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략)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중략)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星座)'처럼 위안을 준다.

- 고등학교 『독서』

[다]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중략)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을 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활 반경인 집 주변과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도록 구성된 공간을 '마을'이라 불렀던 것이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들 사이에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집의 형태는 따로 따로였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다. (중략)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다.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사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인위적 마을에서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단지 내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다. 단지 내에는 단지를 구획하는 울타리, 보안과 감시를 위해 설치한 시시 티브이(CCTV), 외부인을 통제하는 차단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 수 있는 견고한 출입문이 있을 뿐이다.

주거지의 울타리는 우리의 범주를 규정하는 '영역 만들기'의 역할을 한다. 단지 내부에 동질성을 지닌 사회 계층이

거주하는 것이 현대 주거지의 특징인데, 외부와 차별성을 갖는 고급 단지일수록 그 울타리가 견고하다. 그러나 외부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도 이웃과 만나기 위한 공간과 행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겉으로는 삭막해 보이지만 일단 현관문만 열면 아늑한 주거 환경이 펼쳐진다. 반대로 현관문 하나만 잠그면 집 전체가 바깥세상과 완전히 격리된다. 가족만의 영역에는 누구라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없고, 이웃이나 친척이라도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을 때에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중략)

사생활 보호에는 이렇듯 철저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에는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그것이 단지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라면 입주자회나 부녀회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저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한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결속성과 질서는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개별 단위 세대들은 자신들이 집에 들인 비용을 지키기 위해 집단의 힘을 발휘한다.

- 고등학교 『국어』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통합 논술 1번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와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추출한 개별 제시문들의 핵심 개념과 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 간의 유기적 관계, 즉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 의식을 파악하여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역량의 측정에 더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험생들이 현대사회에서 심화되어 가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그것이 촉발할 수 있는 개인의 소외와 불행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지적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 또한 이번 논술고사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 1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관련 문제1
	성취기준 2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1
	성취기준 3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제1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 1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관련 문제1
성취기준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문제1	

2	전달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1 [나], [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성취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1 [나], [다]
성취기준 4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1
성취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2. 사회과 교육 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문제1
성취기준 2	[10통사03-0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문제1
성취기준 3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문제1
성취기준 4	[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문제1

3. 수학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77쪽	[가]	×
독서	방민호 외	Mirae N	2020	164-169쪽	[나]	×
국어	최원식 외	창비	2020	172-175쪽	[다]	×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5. 문항 해설

2026학년도 논술고사 통합 1번 문항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서술하는 [가]와, 이를 참고하여 [나], [다]에 서술된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핵심 평가요소로 삼았다.

[나의 구멍가게는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전통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지만 편의점은 일상에서의 편의를 추구하고 개인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장소이다. 구멍가게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편의점은 소통 방식의 표준화와 무관심한 배려로 인간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한편, [다]의 전통적 마을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매개하는 ‘사이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과 일터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영역이 부재하다. 아파트는 언뜻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사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단지 내외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 짓고 통제하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집단의 성격을 가진다. 가끔 아파트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집단성을 발현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단지의 이익에 기반한 확장된

개인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대]를 분석할 때 편의점의 깔끔한 서비스와 아파트의 아늑한 주거 환경, 공동의 목표 등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부각하거나 반대로 구멍가게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또는 [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구멍가게와 마을은 공동체주의, 편의점과 아파트는 개인주의로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거나 아파트 단지로 대변되는 상징적 결속성과 질서를 새로운 사회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도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다. 오늘날 편의점과 아파트 단지로 표상되는 편리함과 개인주의가 도시 생활의 일상이 되고 있지만 타인들과 함께 서로 열린 감성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구멍가게와 마을 ‘사이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도 필요하다는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문을 분석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1]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서술하는 지문[가]에 근거하여 [나]와 [다]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관계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영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td> <td> <p>① [가]의 핵심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지문 [가]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이 더 강조되었으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모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p> </td> </tr> <tr> <td> <p>② [가]의 핵심 내용을 [나]에 잘 적용하였는가?</p> <p>[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구멍가게와 편의점이라는 공간적 상호작용의 변화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의 구멍가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 사귀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교의 장소였다면 편의점은 무관심의 배려로 개인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다. 편의점(‘함께 있음’)을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설명하면 감점 대상이 된다. [가]와 연계하여 구멍가게는 공동체적 관계를, 편의점은 개인주의를 상징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td> </tr> <tr> <td> <p>③ [가]의 핵심 내용을 [다]에 잘 적용하였는가?</p> <p>[가]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나는 전통 마을에서 아파트로의 공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마을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매개하는 ‘사이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친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아파트는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 공간의 부재와 인위적인 영역 구분으로 사람들 간에 소통이 부재하여 상징적인 공동체적 모습을 보일 뿐이다. 즉 아파트는 표면적으로는 마을과 비슷한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middle;">[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td> <td> <p>④ [가], [나], [다]의 연결이 잘 이루어졌는가?</p> <p>[나]와 [다]를 분석할 때 편의점의 깔끔한 서비스와 아파트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	<p>① [가]의 핵심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지문 [가]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이 더 강조되었으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모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가]의 핵심 내용을 [나]에 잘 적용하였는가?</p> <p>[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구멍가게와 편의점이라는 공간적 상호작용의 변화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의 구멍가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 사귀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교의 장소였다면 편의점은 무관심의 배려로 개인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다. 편의점(‘함께 있음’)을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설명하면 감점 대상이 된다. [가]와 연계하여 구멍가게는 공동체적 관계를, 편의점은 개인주의를 상징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③ [가]의 핵심 내용을 [다]에 잘 적용하였는가?</p> <p>[가]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나는 전통 마을에서 아파트로의 공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마을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매개하는 ‘사이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친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아파트는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 공간의 부재와 인위적인 영역 구분으로 사람들 간에 소통이 부재하여 상징적인 공동체적 모습을 보일 뿐이다. 즉 아파트는 표면적으로는 마을과 비슷한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p>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 [나], [다]의 연결이 잘 이루어졌는가?</p> <p>[나]와 [다]를 분석할 때 편의점의 깔끔한 서비스와 아파트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p>	5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	<p>① [가]의 핵심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지문 [가]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이 더 강조되었으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모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가]의 핵심 내용을 [나]에 잘 적용하였는가?</p> <p>[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구멍가게와 편의점이라는 공간적 상호작용의 변화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의 구멍가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 사귀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교의 장소였다면 편의점은 무관심의 배려로 개인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다. 편의점(‘함께 있음’)을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설명하면 감점 대상이 된다. [가]와 연계하여 구멍가게는 공동체적 관계를, 편의점은 개인주의를 상징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③ [가]의 핵심 내용을 [다]에 잘 적용하였는가?</p> <p>[가]에 근거하여 [다]에 나타나는 전통 마을에서 아파트로의 공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마을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매개하는 ‘사이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친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아파트는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 공간의 부재와 인위적인 영역 구분으로 사람들 간에 소통이 부재하여 상징적인 공동체적 모습을 보일 뿐이다. 즉 아파트는 표면적으로는 마을과 비슷한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p>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 [나], [다]의 연결이 잘 이루어졌는가?</p> <p>[나]와 [다]를 분석할 때 편의점의 깔끔한 서비스와 아파트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p>									

	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대로 구멍가게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또는 [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구멍가게와 마을은 공동체주의, 편의점과 아파트는 개인주의로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거나 아파트 단지로 대변되는 상징적 결속성과 질서를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 제시하는 것도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다. 편리함과 개인주의가 도시 생활의 일상이 되고 있지만 공동체적 인간관계도 필요하다는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가]는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전통적 인간관계가 산업화 이후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적 목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진술한다. [가]에 따르면 [나의 편의점과 구멍가게, [대의 아파트 단지와 마을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라는 대립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나 의견을 나누는 친교의 장소였다면, 편의점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무관심이 배려가 되며 인간관계가 번거로운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대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친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이 공간이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사이 공간의 부재와 영역을 규정짓는 울타리로 인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나]와 [대의 구멍가게와 마을이 집단성에 기반한 교류를 상징한다면 편의점과 아파트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현대적 인간관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소통이 결핍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나타나는 집단의 강한 결속 양상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마을과 유사한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엿볼 수 있다. (597자)

[문항카드 6 - 논술(KU논술우수자)_통합(수학)]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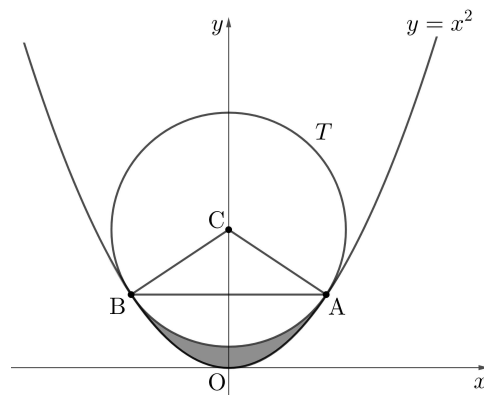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통합(수학) / 문제 2-1, 2-2, 2-3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1, 수학2
	핵심개념 및 용어	경우의 수, 곱의 법칙, 조합, 함수, 도함수, 미분, 적분
예상 소요 시간	50분	

제시문 2-1

(가) 두 함수 $f(x)$,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 = f(x)$, $y = g(x)$ 와 두 직선 $x = a$, $x = 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는

$$S = \int_a^b |f(x) - g(x)| dx$$

(나) 그림에서 곡선 $y = x^2$ 위에 두 점 $A(t, t^2)$, $B(-t, t^2)$ 가 있다. 원 T 는 y 축 위의 점 C 를 중심으로 하고 점 A 와 점 B 를 지난다. 점 A 에서 원 T 의 접선과 곡선 $y = x^2$ 의 접선이 같다. (단, $t > 0$)



[문제 2-1] (13점)

(나)에서 삼각형 ABC 의 넓이가 $\frac{1}{4}$ 일 때, 다음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 (1) 점 A 의 좌표
- (2) 원 T 와 곡선 $y = x^2$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제시문 2-2

(가)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_n C_r = \frac{{}_n P_r}{r!} = \frac{n!}{r!(n-r)!} \quad (\text{단, } 0 \leq r \leq n)$$

(나) 집합 $X = \{1, 2, 3\}$ 이고 집합 $Y = \{y \mid y \text{는 } n \text{ 이하의 자연수}\}$ 이다. (단, n 은 7 이상의 자연수)

- X 에서 Y 로의 함수 f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p 개이다.

$$X \text{의 임의의 원소 } a \text{에 대하여 } f(a) > 2a$$

- X 에서 Y 로의 함수 g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q 개이다.

$$X \text{의 임의의 두 원소 } a, b \text{에 대하여 } a < b \text{이면 } g(a) < g(b)$$

[문제 2-2] (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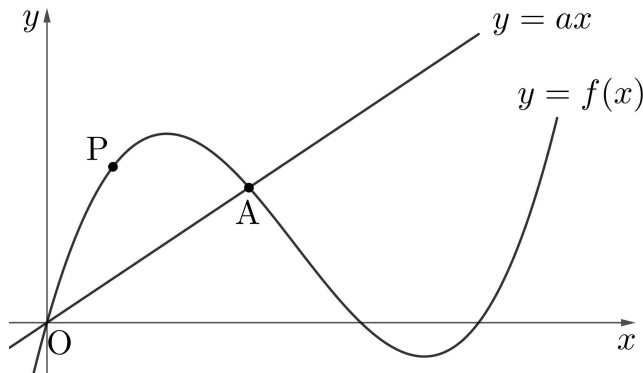
(1) (나)에서 $n = 7$ 일 때 $p - q$ 의 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2) (나)에서 $p - q > 0$ 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2-3

(가)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x = a$ 에서 극값을 가지면 $f'(a) = 0$ 이다.

(나) 그림은 직선 $y = ax$ ($a > 0$)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b 인 삼차함수 $f(x)$ 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방정식 $f(x) = 0$ 은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데, 한 근은 0이고, 다른 두 근은 3보다 크다. 점 $A(3, 3a)$ 와 점 $P(t, f(t))$ 는 곡선 $y = f(x)$ 위에 있다. (단, $0 < t < 3$)



[문제 2-3] (20점)

(나)에서 $a = 4$, $b = 1$ 이라고 하자. 삼각형 OAP의 넓이가 $t = \frac{4}{3}$ 에서 최대가 될 때, 방정식 $f(x) = 0$ 의 0이 아닌 두 근을 모두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3. 출제 의도

[문제 2-1] 미분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2]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3] 주어진 조건 및 도함수를 활용하여 삼차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2-1	수학-(1)문자와 식-④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6] 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수학-(2)기하-① 평면좌표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수학-(2)기하-②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2)기하-③ 원의 방정식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II-(2)미분-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II-(3)적분-③ 정적분의 활용 [12수학II 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2	수학-(1)문자와 식-⑤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4)함수-①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수학-(5)확률과 통계-①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5)확률과 통계-② 순열과 조합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3	수학-(1)문자와 식-⑥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수학II-(2)미분-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 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II 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II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18	137
	수학	고성은 외	좋은책 신사고	2018	258
	수학II	김원경 외	비상	2018	83
기타					

5. 문항 해설

[문제 2-1]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문제 2-2] 함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곱의 법칙 및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문제 2-3]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방정식을 미지의 계수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낸다.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삼차방정식의 계수를 정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B+: 넓이 S_1, S_2 중 하나를 정확히 구함.</p> <p>B: $A\left(\frac{1}{2}, \frac{1}{4}\right)$를 정확히 구함.</p> <p>C: $C\left(0, t^2 + \frac{1}{4t}\right)$를 정확히 구함.</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p>	13점
2-2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B+: $n = 7, n = 8$일 때 $p - q$를 정확히 구하거나, $p - q$를 n의 다항식으로 나타냄.</p> <p>B: C에 더해, $n = 8$일 때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C: $n = 7$일 때 $p - q$를 정확히 구함.</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p>	17점
2-3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B+: $f(x) = x(x-3)(x-8) + 4x$ 또는 $f(x) = x^3 - 11x^2 + 28x$ 를 구함</p> <p>B: $f'\left(\frac{4}{3}\right) = 4$와 $f(x) = x(x-3)(x-b) + 4x$를 적음</p> <p>C: $f'\left(\frac{4}{3}\right) = 4$를 적음</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적음</p>	20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2-1]

(답) (1) $\left(\frac{1}{2}, \frac{1}{4}\right)$ (2) $\frac{5}{12} - \frac{\pi}{8}$

(풀이)

(1) C의 좌표를 $(0, c)$ 라 하면 선분 AB의 길이는 $2t$ 이고 C에서 선분 AB에 이르는 거리는 $|c - t^2|$ 이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frac{1}{4}$ 이므로 $\frac{1}{2} \times 2t \times |c - t^2| = \frac{1}{4}$ 에서 $c = t^2 \pm \frac{1}{4t}$ 이다.

$c = t^2 - \frac{1}{4t}$ 이면 원 T가 곡선에 접할 수 없으므로 $c = t^2 + \frac{1}{4t}$ 이고 C의 좌표는 $\left(0, t^2 + \frac{1}{4t}\right)$ 이다.

점 A에서 $y = x^2$ 에 접하는 직선은 $y = 2tx - t^2$ 이다. 점 C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 T의 반지름인 선분 AC의 길이와 같아야 하므로

$$\frac{\left|t^2 + \frac{1}{4t} + t^2\right|}{\sqrt{1 + 4t^2}} = \sqrt{t^2 + \frac{1}{16t^2}}$$

이를 풀면, $t^2 - t + \frac{1}{4} = 0$ 이므로, 점 A의 좌표는 $\left(\frac{1}{2}, \frac{1}{4}\right)$ 이다.

(2) 곡선 $y = x^2$ 과 직선 AC,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1 이라 하고, 원 T의 내부를 선분 AC와 선분 CO로 잘라서 만들어지는 부채꼴 중 작은 것의 넓이를 S_2 라 하면 구하는 넓이는 $2(S_1 - S_2)$ 이다.

직선 AC의 방정식이 $y = -x + \frac{3}{4}$ 이므로 $S_1 = \int_0^{\frac{1}{2}} \left(-x^2 - x + \frac{3}{4}\right) dx = \frac{5}{24}$ 이다.

S_2 는 반지름이 $\frac{1}{\sqrt{2}}$ 이고 중심각이 $\frac{\pi}{4}$ 인 부채꼴의 넓이이므로 $S_2 = \frac{\pi}{16}$ 이다.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2(S_1 - S_2) = 2\left(\frac{5}{24} - \frac{\pi}{16}\right) = \frac{5}{12} - \frac{\pi}{8}$ 이다.

[문제 2-2]

(답) (1) -20 (2) 9

(풀이)

(1) $f(a) > 2a$ 인 함수 f 의 개수는 다음처럼 계산하면 된다.

$f(1) > 2$ 이어야 하므로 $f(1)$ 은 3, 4, 5, 6, 7의 5가지가 가능하다.

$f(2) > 4$ 이어야 하므로 $f(2)$ 는 5, 6, 7의 3가지가 가능하다.

$f(3) > 6$ 이어야 하므로 $f(3)$ 은 7의 1가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p = 5 \times 3 \times 1 = 15$.

$a < b$ 이면 $f(a) < f(b)$ 인 함수 f 를 만들려면 1, 2, ..., n 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골라서 크기 순서로 $f(1), f(2), f(3)$ 으로 두면 된다. 따라서 $q = {}_7C_3 = \frac{7 \times 6 \times 5}{3 \times 2 \times 1} = 35$ 이고 $p - q = 15 - 35 = -20$ 이다.

(2) $f(a) > 2a$ 인 함수 f 의 개수는 $p = (n-2)(n-4)(n-6)$ 이다.

$a < b$ 이면 $f(a) < f(b)$ 인 함수 f 의 개수는 $q = {}_nC_3 = \frac{n(n-1)(n-2)}{6}$ 이다. 따라서

$$p - q = (n-2)(n-4)(n-6) - \frac{n(n-1)(n-2)}{6} = \frac{(n-2)(5n^2 - 59n + 144)}{6}.$$

n 이 7보다 크므로 $n-2 > 0$ 이다. 또한

$$5n^2 - 59n + 144 = 5\left(n - \frac{59}{10}\right)^2 - 5\left(\frac{59}{10}\right)^2 + 144$$

이므로 $n > \frac{59}{10}$ 일 때 이차식 $5n^2 - 59n + 144$ 은 n 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문제의 조건에서 $n \geq 7$ 이므로 $5n^2 - 59n + 144$ 은 n 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n = 9$ 일 때 $5n^2 - 59n + 144 = 18 > 0$ 이므로 $n \geq 9$ 이면 $5n^2 - 59n + 144 > 0$ 이다.

$n = 8$ 일 때 $5n^2 - 59n + 144 = -8 < 0$ 이므로 $p - q > 0$ 을 만족하도록 하는 n 의 최솟값은 9이다.

[문제 2-3]

(답) 4, 7

(풀이)

삼각형 OAP에서 밑변 OA의 길이가 일정하므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댓값을 갖는 것은 점 P에서 직선 $y = 4x$ 에 이르는 거리가 최대일 때이다. 또한 이것은 점 P에서의 접선이 직선 $y = 4x$ 와 평행할 때이다. 따라서 $f'\left(\frac{4}{3}\right) = 4$ 이다.

$g(x) = f(x) - 4x$ 라 하자. $g(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다.

0과 3이 방정식 $g(x) = 0$ 의 근이므로 $g(x)$ 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g(x) = x(x-3)(x-b)$$

따라서 $f(x) = g(x) + 4x = x(x-3)(x-b) + 4x = x^3 - (b+3)x^2 + (3b+4)x$ 이고

$f'(x) = 3x^2 - 2(b+3)x + (3b+4)$ 이다.

$f'\left(\frac{4}{3}\right) = 4$ 이므로 $3 \times \frac{16}{9} - 2(b+3) \times \frac{4}{3} + (3b+4) = 4$ 이다.

따라서 $b = 8$ 이고, $f(x) = x(x-3)(x-8) + 4x = x^3 - 11x^2 + 28x = x(x-4)(x-7)$ 이다.

$f(x) = 0$ 의 근이 0, 4, 7이므로 $f(x) = 0$ 의 0이 아닌 두 근은 4, 7이다.

[문항카드 7 - 논술(KU논술우수자)_자연]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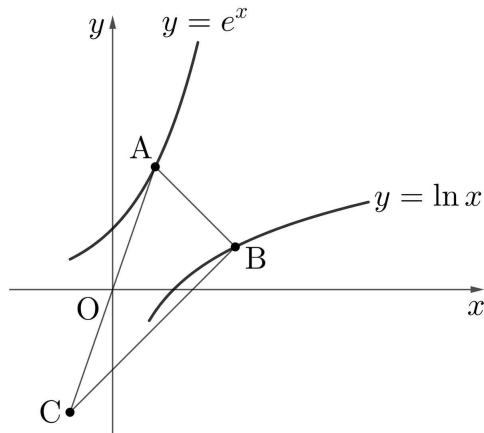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 / 문제 1, 2, 3, 4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핵심개념 및 용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점의 대칭이동, 조합, 이산확률변수, 기댓값, 합성함수, 미분계수, 접선의 방정식, 극대, 극소, 삼차함수 그래프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제시문

제시문 1

(가) 좌표평면 위의 점 (x, y) 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x, -y)$ 이다.

(나) 그림에서 점 A는 제1사분면 위의 점으로 곡선 $y = e^x$ 위에 있다. 점 B는 곡선 $y = \ln x$ 위의 점으로 직선 AB의 기울기는 -1 이다. 점 C는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다.



[문제 1] (17점)

(나)에서 $\angle ACB$ 의 크기가 최소일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2

(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sum_{k=1}^n k = \frac{n(n+1)}{2}, \quad \sum_{k=1}^n k^2 = \frac{n(n+1)(2n+1)}{6}, \quad \sum_{k=1}^n k^3 = \left\{ \frac{n(n+1)}{2} \right\}^2$$

(나) 이산확률변수 X 의 확률질량함수가 $P(X = x_i) = p_i (i = 1, 2, \dots, n)$ 일 때, X 의 기댓값 $E(X)$ 는 $E(X) = x_1p_1 + x_2p_2 + \dots + x_np_n$

[문제 2] (23점)

n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가 있다. 각각의 카드에는 1부터 n 까지 자연수 중 한 개가 적혀 있고, 서로 다른 카드에 적혀 있는 자연수는 서로 다르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카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세 수 중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값을 확률변수 X 라 하자. (단, n 은 3 이상의 자연수)

(1) $n = 10$ 일 때, $P(X = 9)$ 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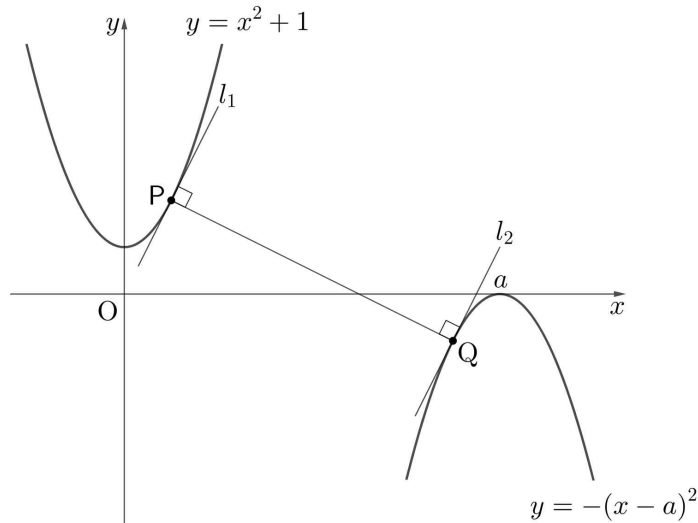
(2) $E(X) = 30$ 일 때, n 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3

(가) 두 함수 $y = f(u)$, $u = g(x)$ 가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y = f(g(x))$ 의 도함수는

$$\frac{dy}{dx} = \frac{dy}{du} \times \frac{du}{dx} \quad \text{또는} \quad y' = f'(g(x))g'(x)$$

(나) 그림에서 직선 l_1 은 곡선 $y = x^2 + 1$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고, 직선 l_2 는 곡선 $y = -(x-a)^2$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다. 직선 PQ는 직선 l_1, l_2 와 각각 수직이다.



[문제 3] (29점)

(1) (나)에서 $a = 8$ 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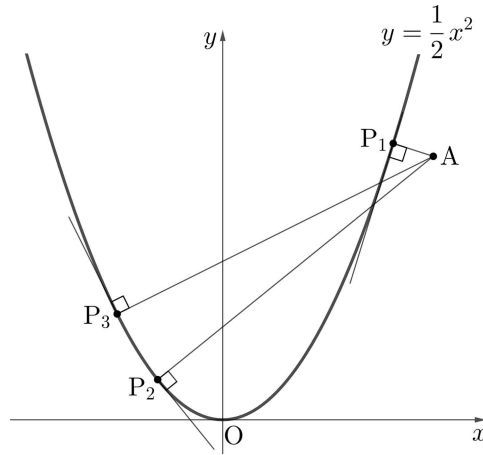
(2) (나)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L 이라 하자. $a = 8$ 일 때, $\frac{dL}{da}$ 의 값을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제시문 4

(가) 함수 $y = f(x)$ 가 $x = a$ 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 = f(x)$ 위의 점 $(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 f(a) = f'(a)(x - a)$$

(나) [그림]에서 세 점 P_1, P_2, P_3 은 곡선 $y = \frac{1}{2}x^2$ 위에 있고, 점 A 는 곡선 위에 있지 않다. 세 직선 AP_1, AP_2, AP_3 은 각각 점 P_1, P_2, P_3 에서 곡선 $y = \frac{1}{2}x^2$ 의 접선과 수직이다.



[그림]

[문제 4] (31점)

다음 조건 (1), (2)를 모두 만족시키는 점 $A(a, b)$ 의 개수를 구하고 풀이과정을 쓰시오.

- (1) a 와 b 는 모두 자연수이고 $4 \leq a \leq 20, 5 \leq b \leq 7$ 이다.
- (2) [그림]처럼 곡선 $y = \frac{1}{2}x^2$ 위의 점 $P\left(t, \frac{1}{2}t^2\right)$ 에서의 접선과 직선 AP 가 수직이 되는 점 P 가 3개 있다.

3. 출제 의도

[문제 1] 좌표평면에서 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 조합,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의 기댓값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거듭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3] 합성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의 미분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4]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 삼차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제 1	<p>수학 - (2) 기하 ④ 도형의 이동 [10수학02-09] 원점, x축, y축, 직선 $y = x$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p> <p>수학 - (4) 함수 ① 함수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p> <p>수학I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②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p>미적분-(2)미분법-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12미적02-0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p>
문제 2	<p>수학 - (5) 확률과 통계 ①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p> <p>수학 - (5) 확률과 통계 ② 순열과 조합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p> <p>수학II - (3) 수열 ② 수열의 합 [12수학 I 03-04] Σ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확률과 통계 - (3) 통계 ① 확률분포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p>
문제 3	<p>수학 - (2) 기하 ②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p> <p>수학II - (2) 미분 ① 미분계수 [12수학 II 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p> <p>수학II - (2) 미분 ② 도함수 [12수학 II 02-04] 함수 $y = x^n$ (n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p> <p>수학II - (2) 미분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 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p> <p>미적분 - (2) 미분법 ②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9] 음함수와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p>
문제 4	<p>수학 - (2) 기하 ②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p> <p>수학II - (2) 미분 ② 도함수 [12수학 II 02-04] 함수 $y = x^n$ (n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p> <p>수학II - (2) 미분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 II 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2수학 II 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홍성복 외	지학사	2020	157
	수학I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0	143
	확률과 통계	홍성복 외	지학사	2020	87
	미적분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81
	수학II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72
기타					

5. 문항 해설

[문제 1] 좌표평면에서 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등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 조합의 수,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의 기댓값,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3] 합성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4]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 삼차함수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B+: 직선 OA의 방정식 $y = e^a x$을 구함.</p> <p>B: 직선 OA가 곡선 $y = e^x$의 접선일 때 $\angle ACB$의 크기가 최소임을 적음.</p> <p>C: $\angle AOB$의 크기가 최소일 때 $\angle ACB$의 크기가 최소임을 적음.</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적음.</p>	17점
문제 2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또는, $E(X) = \frac{n+1}{2}$을 구함.</p> <p>B+: $E(X)$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으나, 간단한 식으로 정리하지 못함.</p> <p>B: $P(X=k) = \frac{(n-k)(k-1)}{{}_n C_3}$를 구함.</p> <p>C: $P(X=9) = \frac{1}{15}$을 구함.</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p>	23점
문제 3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B+: $\frac{db}{da} = \frac{1}{12b^2+4}$를 구함.</p> <p>B: L을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frac{dL}{db} = \frac{8b(3b^2+1)}{\sqrt{4b^2+1}}$을 구함.</p> <p>C: $P(1,2)$를 정확히 구함.</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적음.</p>	29점
문제 4	<p>A+: 답과 풀이가 맞음.</p> <p>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p> <p>B+: $f\left(\sqrt{\frac{2(b-1)}{3}}\right) \times f\left(-\sqrt{\frac{2(b-1)}{3}}\right) < 0$일 때 $f(t) =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적음.</p> <p>B: $f'(t) = 0$을 풀어 $t = \pm \sqrt{\frac{2(b-1)}{3}}$을 구함.</p> <p>C: P에서의 접선과 직선 AP의 수직 조건 $f(t) = t^3 - 2(b-1)t - 2a = 0$을 구함.</p> <p>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p> <p>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p>	31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1]

(답) (1, e)

(풀이)

점 A의 좌표를 (a, e^a) 이라 하자. 점 A와 점 B는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이고 점 A와 점 C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overline{OA} = \overline{OB} = \overline{OC}$ 이다. 삼각형 OBC는 이등변삼각형이고

$$\angle AOB = \angle OCB + \angle OBC = 2\angle OCB = 2\angle ACB.$$

따라서, $\angle AOB$ 의 크기가 최소일 때 $\angle ACB$ 의 크기가 최소이다.

$y = e^x$ 의 그래프와 $y = \ln x$ 의 그래프가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이고 점 A와 점 B가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직선 OA가 곡선 $y = e^x$ 의 접선일 때 직선 OB도 곡선 $y = \ln x$ 의 접선이고 이때 $\angle AOB$ 의 크기가 최소이다.

직선 OA가 곡선 $y = e^x$ 의 점 A에서의 접선이라고 하자. $\frac{d}{dx}(e^x) = e^x$ 이므로 직선 OA의 기울기는 e^a 이고, 직선 OA의 방정식은 $y = e^a x$ 이다. 이 직선이 점 A (a, e^a) 를 지나므로 $e^a = e^a \times a$ 이다. 따라서 $a = 1$ 이고 답은 (1, e)이다.

[문제 2]

(답) (1) $\frac{1}{15}$ (2) 59

(풀이)

(1)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세 장의 카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_{10}C_3$ 이다.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가 9이면, 가장 큰 수는 10,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나머지 수는 2, 3, ..., 9의 8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따라서

$$P(X=9) = \frac{8}{{}_{10}C_3} = \frac{1}{15}$$

(2) $P(X=k)$ 를 구하자. (단, $2 \leq k \leq n-1$)

n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세 장의 카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_n C_3$ 이다.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가 k 이므로,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크기순으로 a, b, c 라 하면 $c = a+k$ 이다. $a+k \leq n$ 이므로 $a \leq n-k$ 이다. 따라서 a 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 $n-k$ 로 $n-k$ 가지이다. 각각의 a 에 대하여 $a < b < a+k$ 이므로 b 는 $a+1$ 부터 $a+k-1$ 까지의 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각각의 a 에 대하여 b 가 될 수 있는 수는 $k-1$ 가지이다. 따라서 카드에 적힌 세 개의 수 중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값이 k 인 것은 총 $(n-k) \times (k-1)$ 가지가 있다.

따라서 $P(X=k) = \frac{(n-k)(k-1)}{{}_n C_3}$ 이다.

기댓값은

$$\begin{aligned} E(X) &= \frac{1}{{}_n C_3} \sum_{k=2}^{n-1} k(n-k)(k-1) = \frac{1}{{}_n C_3} \sum_{k=1}^n k(n-k)(k-1) \\ &= \frac{1}{{}_n C_3} \sum_{k=1}^n (-k^3 + (n+1)k^2 - nk) \end{aligned}$$

$$= \frac{6}{n(n-1)(n-2)} \left\{ -\frac{n^2(n+1)^2}{4} + \frac{n(n+1)^2(2n+1)}{6} - \frac{n^2(n+1)}{2} \right\}$$

$$= \frac{n+1}{2}$$

$E(X) = 30$ 이므로 $\frac{n+1}{2} = 30$ 이고, $n = 59$ 이다.

[문제 3]

(답) (1) (1, 2) (2) $\frac{2\sqrt{5}}{5}$

(풀이)

(1) 점 P의 좌표를 $(b, b^2 + 1)$ 이라고 하자. 점 P에서의 접선 l_1 의 기울기는 $2b$ 이다.

점 Q의 좌표를 $(c, -(c-8)^2)$ 이라고 하자. 점 Q에서의 접선 l_2 의 기울기는 $-2(c-8)$ 이다.

직선 l_1 과 l_2 가 평행하므로 $2b = -2(c-8)$ 이고 정리하면 $c = 8 - b$ 이다.

직선 PQ의 기울기는 $\frac{-(c-8)^2 - (b^2 + 1)}{c - b} = \frac{-2b^2 - 1}{8 - 2b}$ 이다.

직선 PQ가 직선 l_1 과 수직이므로 $2b \times \left(\frac{-2b^2 - 1}{8 - 2b} \right) = -1$ 이다. 따라서 $b^3 + b - 2 = 0$ 이다.

$(b-1)(b^2 + b + 2) = 0$ 이고, $b = 1$ 이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1, 2)$ 이다.

(2) 점 P의 좌표를 $(b, b^2 + 1)$, 점 Q의 좌표를 $(c, -(c-a)^2)$ 라고 하자.

접선 l_1 의 기울기는 $2b$ 이고, 접선 l_2 의 기울기는 $-2(c-a)$ 이다.

직선 l_1 과 l_2 가 평행하므로 $2b = -2(c-a)$ 이고 정리하면 $c = a - b$ 이다. 따라서 점 Q의 좌표는 $(a-b, -b^2)$ 이다.

직선 PQ의 기울기는 $\frac{-b^2 - (b^2 + 1)}{(a-b) - b} = \frac{-2b^2 - 1}{a - 2b}$ 이다.

직선 PQ가 직선 l_1 과 수직이므로 $2b \times \left(\frac{-2b^2 - 1}{a - 2b} \right) = -1$ 이다. 따라서

$$a = 4b^3 + 4b \quad \dots\dots\dots (*)$$

또한 점 Q의 좌표는 $(4b^3 + 3b, -b^2)$ 이다. 점 P의 좌표가 $(b, b^2 + 1)$ 이므로

$$L = \sqrt{(4b^3 + 2b)^2 + (2b^2 + 1)^2} = \sqrt{4b^2(2b^2 + 1)^2 + (2b^2 + 1)^2} = (2b^2 + 1)\sqrt{4b^2 + 1}$$

$$\frac{dL}{db} = 4b\sqrt{4b^2 + 1} + (2b^2 + 1) \times \frac{8b}{2\sqrt{4b^2 + 1}} = \frac{8b(3b^2 + 1)}{\sqrt{4b^2 + 1}}$$

$a = 8$ 일 때 (*)에 의해 $b = 1$ 이고, $\frac{dL}{db} = \frac{32}{\sqrt{5}}$.

(*)에서 $\frac{da}{db} = 12b^2 + 4$ 이고,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하여 $\frac{db}{da} = \frac{1}{12b^2 + 4}$ 이다. $b = 1$ 일 때, $\frac{db}{da} = \frac{1}{16}$ 이다.

따라서 $a = 8$ 일 때 $\frac{dL}{da} = \frac{dL}{db} \times \frac{db}{da} = \frac{32}{\sqrt{5}} \times \frac{1}{16} = \frac{2}{\sqrt{5}} = \frac{2}{5}\sqrt{5}$

[문제 4]

(답) 8

(풀이)

점 P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t 이고 직선 AP와 수직이므로 $t \times \frac{\frac{1}{2}t^2 - b}{t - a} = \frac{t^3 - 2bt}{2(t - a)} = -1$ 이다. 정리하면

$$t^3 - 2(b-1)t - 2a = 0.$$

$f(t) = t^3 - 2(b-1)t - 2a$ 라 하면 $f'(t) = 3t^2 - 2(b-1)$ 이다. $f'(t) = 0$ 일 때 $t = \pm \sqrt{\frac{2(b-1)}{3}}$ 이다.

조건 (2)를 만족시키려면 $f(t) =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i) $b = 5$ 일 때

$\sqrt{\frac{2(b-1)}{3}} = \sqrt{\frac{8}{3}}$ 이다. $f(t) =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f\left(\sqrt{\frac{8}{3}}\right) \times f\left(-\sqrt{\frac{8}{3}}\right) < 0$ 이다.

따라서 $\left(\frac{8}{3}\sqrt{\frac{8}{3}} - 8\sqrt{\frac{8}{3}} - 2a\right)\left(-\frac{8}{3}\sqrt{\frac{8}{3}} + 8\sqrt{\frac{8}{3}} - 2a\right) < 0$ 이고, $\left(a + \frac{8}{3}\sqrt{\frac{8}{3}}\right)\left(a - \frac{8}{3}\sqrt{\frac{8}{3}}\right) < 0$ 이다.

$-\frac{8}{3}\sqrt{\frac{8}{3}} < a < \frac{8}{3}\sqrt{\frac{8}{3}}$ 이고, $a^2 < \frac{512}{27} = 18 + \frac{26}{27}$ 이므로 $a \leq 4$ 이다. 조건 (1)에 의해 $a = 4$ 이다.

(ii) $b = 6$ 일 때

$\sqrt{\frac{2(b-1)}{3}} = \sqrt{\frac{10}{3}}$ 이다. $f(t) =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f\left(\sqrt{\frac{10}{3}}\right) \times f\left(-\sqrt{\frac{10}{3}}\right) < 0$ 이다.

(i)과 같이 풀면 $-\frac{10}{3}\sqrt{\frac{10}{3}} < a < \frac{10}{3}\sqrt{\frac{10}{3}}$ 을 얻는다.

$a^2 < \frac{1000}{27} = 37 + \frac{1}{27}$ 이므로 $a \leq 6$ 이다. 조건 (1)에 의해 $a = 4, 5, 6$ 이다.

(iii) $b = 7$ 일 때

$\sqrt{\frac{2(b-1)}{3}} = 2$ 이다. $f(t) =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f(2) \times f(-2) < 0$ 이다.

(i)과 같이 풀면 $-8 < a < 8$ 을 얻는다. 조건 (1)에 의해 $a = 4, 5, 6, 7$ 이다.

따라서 조건 (1), (2)를 모두 만족시키는 점 $A(a, b)$ 의 개수는 $1 + 3 + 4 = 8$ 이다.

□ 검증위원 의견서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 공통(영어)]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토 과목

소속	00고등학교	성명	최00
검토 과목	공통(영어)		
적용 교육과정	영어, 영어 I, 영어 II		

2. 검토 내용

- 출제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여부 검증
- 제시문의 교과서 내 출제 여부 검증 등

제시문의 적절성
다양한 제시문이 학생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성장시키는 기회로 가질 수 있음
2. 출제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다양한 어휘력을 연습하고 읽기에서의 종합적 추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됨
3.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의 적절성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예시 답안을 통해 중점적으로 키울 언어적 역량을 잘 제시함
4. 종합 의견
학생들의 다양한 어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휘 문항이 잘 배열되어 있으며, 쓰기 역량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를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법 문제가 설계됨. 독해 문항을 통해서 읽기 능력에서 중요한 응집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론 능력을 확인하고 사고의 확장성을 기르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됨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토 과목

소속	00고등학교	성명	김00
검토 과목	인문·예체능계(국어)		
적용 교육과정	국어, 독서, 문학		

2. 검토 내용

- 출제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여부 검토
- 제시문의 교과서 내 출제 여부 검토 등

제시문의 적절성
<p>국어 교과목의 경우 단순히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만 점검하면 해당 평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출제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제시문임. 그런데 건국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의 모든 제시문은 검정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독서’, ‘문학’ 교과서에서만 발췌하였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보증함은 물론 고등학생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사실 또한 담보하고 있음.</p>
2. 출제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p>출제의도에서는 국어 교과목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기존 40개에서 35개로 문항 수를 축소함으로써 지원자의 입장을 더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출제 근거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단순히 서류상으로 문항과 엮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문항의 출제의도와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은 점이 인상적이며, 1번 문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론적 이해나 비판적 이해보다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도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p>
3.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의 적절성
<p>문항 해설에서는 각 지문 및 문항의 성격을 요약적으로 명료하게 기술함.</p>
4. 종합 의견
<p>이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의 국어 문항과 비교했을 때 발문(문두)의 적절성, 선지의 명료성이 강화되는 등 한 단계 더 높은 품격을 보여 줌. 또한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의 평가 문항이라는 특수성과 문항 수 축소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난이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 점도 인상적임.</p>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 자연계(수학)]

선행학습영향평가 문항카드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토 과목

소속	00고등학교	성명	김00
검토 과목	자연계(수학)		
적용 교육과정	수학, 수학 I, 수학II		

2. 검토 내용

- 출제 문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여부 검토
- 제시문의 교과서 내 출제 여부 검토 등

제시문의 적절성
교과서와 EBS연계 자료를 잘 활용하여 1문제(수정완료)를 제외하고 2015개정교육과정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항들이 실제 고등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유형의 형태로 제시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출제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수학, 수학 I, 수학II 과목의 문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단원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수학적 개념, 원리 등을 잘 녹여 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산 문제의 비중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3.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의 적절성
해설이 따로 없어서 직접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토론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해설지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정답의 분포도 1번부터 4번까지 특정 번호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4. 종합 의견
전반적으로 검토부터 토론까지 매끄럽고 깔끔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교수님 2분이서 하루만에 25문제를 출제하는것이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거나 교수+교사 팀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들이 적극 의견을 수용해주시고 대화를 많이 하며 토론한 것이 좋았습니다. 수학에서 교육과정상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확통, 미적분, 기하 과목까지 시험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6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 인문]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인문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2026학년도 인문 논술고사의 제시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논술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제시문 [가]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1]과 제시문 [가], [다]를 통하여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간의 관계 양상을 논하는 [문제2]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이라면 매우 익숙한 형태였을 것이다. 모든 지문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교과서에서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은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실린 <남북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다]는 과학적 소재를 다룬 글이지만, 핵심 개념인 ‘여닫개’가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개체 간의 소통적 연결 체계를 뜻하는 비유어로 쓰였다. 제시문 [라]는 이청준 작가의 <흰 철쭉>의 일부로 현재의 집주인인 ‘나’ 부부와 이전 주인인 이산가족 아주머니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물 구실을 한다. 이때 양자의 연결에는 부부가 발현하는 ‘타자 지향성’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나’ 부부와 이산가족 아주머니 사이에는 [다]에서 말하는 ‘여닫개’의 기능이 온전히 작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여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 유형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1] 논제의 요구사항은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의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 제시문에서 언

급한 ‘타자 지향성’을 바탕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여러 도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지식적으로 접근하여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보 가운데 남과 북 출신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타자 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이해하여 글을 작성해야 한다. [나]에 제시된 자료는 국어 교과서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료이며, 이를 주어진 지문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문제2]는 [라]의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가]의 ‘타자 지향성’의 관점과 [다]의 ‘여닫개’를 이용하여 서술된 핵심 개념의 논리적 연결성 파악을 기반으로 이를 소설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논제를 구성하고 있다. [라]의 현재의 집 주인인 ‘나’ 부부와 이전 주인인 이산가족 아주머니는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타자’이다. 철쭉꽃을 유심히 보는 낯선 아주머니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나물을 산다는 명목으로 집안으로 들인 뒤 사연을 물어보는 행위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아주머니가 부부의 환대에 부응해서 철쭉꽃에 얽힌 사연과 심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에서 말하는 ‘여닫개’의 기능이 온전히 작용해 서로 간의 소통적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출제 의도에서는 인문·사회가 아닌 과학 분야의 글로서 신경 세포를 매개로 하는 생명 현상의 한 단면을 미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여 소설 속에서 섬세하게 형상화된 심리 중심의 인간 관계 양상과 연결시키도록 했다는 점을, 겉으로 보기에 상호 연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각기 다른 분야의 글에서, 표상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핵심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p>다.</p> <p>[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p> <p>[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p>[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언어와 매체	<p>[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p> <p>[12언매02-11] 다양한 국어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p> <p>[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p> <p>[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p> <p>[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통합사회	<p>[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p> <p>[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p> <p>[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p>
	사회·문화	<p>[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p> <p>[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p> <p>[12사문05-01]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고 사회 운동이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p>
	한국지리	<p>[12한지06-03]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한다.</p>
	윤리와 사상	<p>[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p> <p>[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p> <p>[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과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p>

2	2015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p>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p> <p>[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p> <p>[12생윤06-02]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p>
		국어	<p>[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p> <p>[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p> <p>[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p> <p>[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p>
		화법과 작문	<p>[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p> <p>[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p> <p>[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p> <p>[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p>
		독서	<p>[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p> <p>[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p> <p>[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p> <p>[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p> <p>[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제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p>[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제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문학	<p>[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p> <p>[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p>

			<p>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p> <p>[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p> <p>[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p> <p>[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p> <p>[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p> <p>[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p>
		언어와 매체	<p>[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p> <p>[12언매02-11] 다양한 국어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p> <p>[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p>
		윤리와 사상	<p>[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p> <p>[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p>
		생활과 윤리	<p>[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p>

2026학년도 건국대 논술 인문에서는 국어, 사회 교과와 여러 성취 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등 국어 교과에서 다수의 과목에 관련한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교과에서도 통합사회와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을 활용하였고, 특히 과학적 소재의 지문에서 비유적 의미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학생이 더 충실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의 설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2026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 인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은 각 제시문과 문제의 핵심 내용과 논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항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여주고 있다. [문제1]의 문항 해설의 경우, 우선 [가] 지문에서 논제의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나]의 도표 자료에서는 각 도표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와 가치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표에서 남한 사람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나]를 분석하기 위해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적용할 때 어느 한쪽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 양쪽 모두가 서로를 낯선 존재로 보고 있음을 찾아내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요건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2]의 문항 해설의 경우 [다]는 인문사회가 아닌 과학 분야의 글로 신경 세포 사이에 펼쳐지는 생명 현상을 미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의 ‘여닫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문 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두 개념의 의미내용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과 특히 [다]의 ‘여닫개’가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개체 간의 소통적 연결 체계를 뜻하는 비유어로 쓰였다는 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자료를 읽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시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설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구체적인 채점 기준(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내용)을 서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명확한 논술 서술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문제1]의 채점 기준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 [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제시문들이 어떠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서술해야 할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에 적용하고 있는가?, [나]의 두 도표 간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가? 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들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들(표면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명시해 주어서 채점 기준을 명확히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다.

[문제2]의 채점 기준의 경우 [라]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를 제시문 [가]와 [다]의 관점에서 제시한 각 요소들을 명시하고, 인물 간 관계 양상의 적절한 연결을 ‘나’ 부부가 아주머니를 환대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 공감하며 해마다 철쭉꽃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성껏 철쭉을 가꾸는 행위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과 아주머니가 부부의 배려에 적극 응답해서 철쭉에 얽힌 애뜻한 그리움의 언어를 발화하고 이를 부부가 공감의 마음과 동정의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상호간 내적 연결을 성취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채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여닫개의 특징적 현상으로 설명한 ‘항상성’이 [라]에서 인물간 관계의 균형적 조화를 통한 안정적 지속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짚어내서 답안에 잘 반영한 경우 추가 점수 부여라는 요소까지 제시하여 학생들이 더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 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이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서술로 풀어 설명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해설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과 동시에 문단 간 구성과 설득력 있는 전개 등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문제1]의 예시 답안의 경우 도표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그 속에서 [가]의 관점이 반영되고 제시문 간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는 서술을 해야 함이 명시되고 있다. [문제2]의 예시 답안의 경우에는 문항 해설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더 압축적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 부부가 이산가족 아주머니와 흰 철쭉을 매개로 소통과 연결을 이뤄내는 과정을 ‘여닫개’와 ‘타자 지향성’으로 연결하여 잘 서술하고 있다.

8) 종합 의견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인문 논술고사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문학 작품의 인물 사례를 바탕으로 타자에 대한 관심이나 윤리적 실천이 드러나도록 문항을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분야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지문과 도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만 출제자가 의도한 제대로 된 답을 구성할 수 있기에 독해력뿐만 아닌 종합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기출문제, 평가기준 등)가 풍부하여 따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은 대학 논술고사로서의 적절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논제가 앞으로 학생들이 마주할 다양한 사회적 타자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관에 관한 생각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한다. 논술고사는 다른 고사와 달리 답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논제의 경우에는 주제에서부터 문항 서술까지 논술고사라는 전형이 가진 본래의 의미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황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인문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인문은 기존의 논술고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 『사회·문화』, 국어 교과 『언어와 매체』, 『독서』, 『국어』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여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적절한 난이도의 제시문이라 할 수 있다.

[가] 제시문은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다루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나]는 국립국어원의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도표이다. 도표를 통해 북한 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말에 대해 갖는 생각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다]는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과학 분야 제시문으로 항상성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라]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청준의 소설 『흰 철쭉』으로 해방으로 실향민이 된 아주머니와 그녀의 사연을 들어주며 공감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문학 작품의 분량이 다소 길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가]와 [다]의 핵심 개념을 참고하여 읽어내면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는 데 무리가 없다.

각 제시문이 교과서 내 지문으로 선정되었기에 분량이나 독해의 난이도가 평이하야 어렵지 않게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제시된 도표를 분석할 수 있으며, 과학 분야 개념어의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소설 속 소재, 인물의 행동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1]은 [가] 제시문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나]의 도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두 제시문의 유기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기 위한 남한과 북한 주민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서술하도록 했다. [문제2]는 [가]의 타자 지향성과 [다]의 여닫개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는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분석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경

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언어와 매체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사회문화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제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언어와 매체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문학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2026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 인문에서는 국어, 사회 교과와 다양한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등 국어 교과 다수의 과목의 성취 기준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독서 교과서에서 과학 지문을 선정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체제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문학과 연결짓도록 하여,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과학 분야의 자료까지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에서는 [문제1]과 [문제2]에서 파악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 분석, 답안 작성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문제1]에서는 제시문 [가]에 명시된 ‘타자 지향성’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제시문 [나]의 도표와 연결짓도록 하였다. [나]는 각각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연상 이미지와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도표이다. 이 도표를 통해 양쪽 모두가 서로를 낯선 존재로 보고 있음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문제2]에서는 [가]의 ‘타자 지향성’ [나]의 ‘여닫개’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명시하여 주어진 개념어를 통해 소설 속 인물 간 관계와 중심 소재,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연결지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답안 작성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문의 구체적 항목을 예로 들어 해설하였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채점 기준을 통해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답안의 핵심 내용과 답안 작성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1]에서는 [가]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나] 도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나]의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 제시문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2]에서는 문제에서 적시된 ‘타자 지향성’과 ‘여닫개’ 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라] 소설의 구성요소와 적절히 연결지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각각의 핵심어의 개념과 속성, 의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라] 인물 간 관계 양상을 적절히 설명하였는지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채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과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술로 글자수에 맞추어 제시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과 설득력있는 논리적 전개와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1]의 예시 답안은 [가]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비추어 [나]를 분석하였다.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각각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한 후,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도표에 명시된 수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이 말씨 때문에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차별을 경험함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임을 명시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여 논리적 전개와 근거를 통한 설득적 글쓰기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문제2]의 예시 답안은 [가]와 [다]의 핵심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라]의 아주머니와 ‘나’ 부부 간 관계 양상을 논하였다. ‘흰 철쭉’이라는 미적 매개물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여닫개’의 작동 상황과 유사함을 파악하고 ‘나’ 부부의 적극적 타자 지향적 태도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아주머니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철쭉꽃을 파내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주기로 (1년에 한 번)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 산나물로 성의를 표하는 것, 부부는 꽃을 돌보는 것과 같은 행위가 ‘안정적 지속의 향상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조화’로 보았다.

8) 종합 의견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인문 논제는 기존의 논제 유형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교과서 지문을 제시문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번 인문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서 과학 분야의 지문을 선정하여 신경 세포를 매개로 하는 생명 현상의 작동 과정을, 이청준의 소설 『흰 철쭉』 과 연결지어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여 소설 속 인간 관계 양상과 연결짓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서로 다른 제시문 간의 연결을 통한 깊이 있고 정합적인 논지 구성력과 이해력과 추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출제 의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지적 역량의 측정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의식 결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와도 부합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통합(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통합의 제시문은 제시문 [가]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개념인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나], [다]이 대하여 논하는 형식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모든 지문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국어과 일반 선택 과목 교과서에서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은 논술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서술하려는 부분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제시하여 현대 사회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나]는 구멍가게와 편의점을 통하여, [다]는 전통적 마을과 아파트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사이 공간’의 중요성과 공동의 영역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각 제시문 자체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며,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논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 유형이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1] 논제에 대해서 고등학교 국어과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추출한 개별 제시문들의 핵심 개념과 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 간의 유기적 관계, 즉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 의식을 파악하여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서술하는 [가]와, 이를 참고하여 [나], [다]에 서술된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핵심 평가요소로 삼았다.

출제 의도에서 제시한 것은 논술 고사의 일반적인 평가 요소인 문해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인지적 역량의 측정에 더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험생들이 개인주의, 집단 이기

주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윤리적 영역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제시하였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통합사회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3-0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한다.

2026학년도 건국대 논술 통합에서는 국어, 사회 교과외의 여러 성취 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등 국어 교과에서 다수의 과목에 관련한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교과에서는 통합사회의 내용만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전에 고지된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학생이 더 충실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의 설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2026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 통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은 각 제시문과 문제의 핵심 내용과 논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문항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높여주고 있다.

우선 [가] 지문에서 논제의 해결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구멍가게는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전통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지만 편의점은 일상에서의 편의를 추구하고 개인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장소임을 활용하여, 구멍가게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편의점은 소통 방식의 표준화와 무관심한 배려로 인간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다]는 전통적 마을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매개하는 '사이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과 일터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영역이 부재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아파트는 언뜻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사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단지 내외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 짓고 통제하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집단의 성격을 가짐과 가끔 아파트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집단성을 발현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단지의 이익에 기반한 확장된 개인주의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편의점과 아파트 단지로 표상되는 편리함과 개인주의가 도시 생활의 일상이 되고 있지만 타인들과 함께 서로 열린 감성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구멍가게와 마을 '사이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도 필요하다는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문을 분석한 경우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구체적인 채점 기준(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내용)을 서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명확한 논술 서술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채점 기준의 경우에는 [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등으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평가 항목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요소들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을 명시해 주었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편의점('함께 있음')을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설명하면 감점 대상이 된다.'나 '실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체적 인간관계도 필요하다는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등 구체적인 가감점 요소를 명시하여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서술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해설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과 동시에 문단 간 구성과 설득력 있는 전개 등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가]를 통하여 산업화 이후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적 목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의 편의점과 구멍가게, [다]의 아파트 단지와 마을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라는 대립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임을 제시한 후, 사이 공간의 유무, 소통의 유무 등을 통하여 편의점과 아파트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현대적 인간관계의 양상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마무리에서는 소통이 결핍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나타나는 집단의 강한 결속 양상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마을과 유사한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의 속성임을 제시하여 논제의 요구 사항에 충실한 답변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8) 종합 의견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통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술 출제 경향을 유지하고,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학교 교육 중심의 논술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이 혼합된 형태에서 각 영역별로 적절한 난이도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모든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내의 지문을 활용하였고, 분야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지문을 이해하여야만 출제자가 의도한 제대로 된 답을 구성할 수 있기에 독해력뿐만 아닌 종합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적절하게 변별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기출문제, 평가기준 등)가 풍부하여 따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대학 논술고사로서의 적절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황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통합(국어)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p>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통합 1번 문항은 제시문 [가]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을 찾고 이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국대학교 논술고사와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선정하여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으로 구성되었다.</p> <p>[가]는 사회나 집단이 강조되었던 전통 사회와 산업화 이후 개인주의 가치관 기반의 인간 관계 양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하여 [나]의 구멍가게와 편의점, [다]의 마을 공동체와 ‘사이 공간’, 아파트의 속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자체의 내용은 평이하고, 제시문 안에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인주의, 사회 공동체, 공동체 의식 등의 핵심개념 및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난이도의 제시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항이다.</p>
--------------------	--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p>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통합 논술 1번 문항은 [가] 제시문에서 전통사회와 산업화 이후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p> <p>제시문들의 핵심 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시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역량 뿐 아니라 사회의 주역이 될 수험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문항 분석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공동체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는</p>
----------------------	---

점에서 교육적 가치 또한 높은 문항으로 이해력, 분석적 사고력 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까지 평가하기 위한 출제 의도에 부합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화법과 작문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통합사회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3-0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26학년도 건국대 논술고사 통합 1번 문항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 평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국어 교과, 사회 교과의 성취 기준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한국지리 등 여러 과목 관련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리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항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에서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출제자가 의도한 바에 부합하는 답안 구성의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핵심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나]의 구멍가게와 편의점, 제시문 [다]의 마을과 아파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의 구멍가게는 제시문 [가]의 전통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편의점은 개인주의적 인간 관계의 공간임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다] 마을의 ‘사이 공간’은 전통적 사회와 대응하며 아파트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산업화 이후의 개인주의적 공간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제시문 [나]의 편의점과 제시문 [다]의 아파트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답안을 작성하거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의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문항 해설에 명시하였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 [다]에 대한 적용, 제시문 간의 유기적 연결성,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과 같이 명확한 평가 영역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전통사회에서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이 산업화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가]의 핵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치관의 변모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나]와 [다]에 각각 적절하게 적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가], [나], [다] 제시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평가하여 균형적 시각으로 분석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기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 문장 연결 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제시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문항 해설에서 명시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답안 작성의 방향을 구체적인 서술로 풀어 조건에 맞게 작성되었다. 제시문 [가]의 핵심 개념과 논지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여 [나]와 [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문단 구성, 적절한 어휘 선택, 문장 구성과 논리적 연결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시 답안을 제시하였다. 문항 해설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600자 안에 짜임새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단락 구성과 핵심어 제시, 문장 간 응집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8) 종합 의견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 통합 1번 문항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어, 독서, 공통사회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난이도의 제시문이었으며, 이에 기존 논술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건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논술고사에 대비하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인지적 역량을 측정할 뿐 아니라 개인의 소외와 불행 등과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 출제 의도가 특히 돋보였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통합(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p>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 수학의 제시문 2-1, 2-2, 2-3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수학 I, 수학 II 교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익숙한 내용을 통해 논술 문항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함.</p> <p>제시문 2-1의 (가)는 수학 II 교과의 적분법 단원 중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곡선 위의 두 점과 그 두 점을 지나고 y축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및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원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p> <p>제시문 2-2의 (가)는 수학 교과의 경우의 수 단원 중 ‘조합의 수’를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두 집합 X, Y를 제시하고 X에서 Y로의 함수 f와 g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도록 각각의 조건이 적절하게 제시됨.</p> <p>제시문 2-3의 (가)는 미적분 교과의 미분법 단원 중 ‘미분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미분계수의 값’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삼차함수 $y=f(x)$와 직선이 원점을 지나고 다른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과 곡선 위의 다른 한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방정식 $f(x)=0$의 원점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p>
--------------------	--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p>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 수학 문제들은 범위에 포함되는 교과들에 있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제시문에서 충분히 출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문제해결의 단계적 접근에서 고교 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개념들이 활용되어 학생들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종합적 사고력과 이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르게 기술하는 것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p>
----------------------	---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2-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1-06] 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 II	[12수학 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수학 II	[12수학 II 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 II 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 수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수학II 교과목의 여러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시문 또한 교과서의 개념 내용을 인용하였기에 출제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 수학 문항들의 제시문 및 문항 해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안내되었고,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됨.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 수학 문항들의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 안에서 출제 의도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또한, 논술고사의 특성 및 취지에 맞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과정 및 접근 방법에 충분히 점수가 부여되도록 A+부터 F까지 7단계의 단계별 채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성과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함.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으며, 풀이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기호, 표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제시함. 또한, 향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적절히 제공됨.

[문제 2-1]은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고, 접점을 좌표를 구한 뒤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문제 2-2]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곱의 법칙 및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을 이해가 쉽도록 자세히 설명함.

[문제 2-3]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방정식을 미지수 계수로 나타내고,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미지수 계수를 정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출제된 문항들의 예시 답안 및 풀이과정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수시모집 논술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적절한 기준과 준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8) 종합 의견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 수학의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기본 개념 등을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또한, 모든 문항에 그림을 삽입하여 수험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스스로 추론해 보도록 유도함. 모의논술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기초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출제되었다고 판단됨.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통합(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	--

[제시문 2-1](가)는 두 함수 $f(x)$, $g(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 = f(x)$, $y = g(x)$ 와 두 직선 $x = a$, $x = 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로 주어졌으며, [제시문 2-2](가)는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기술되었으며, [제시문 2-3](가)는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x = a$ 에서 극값을 가지면 $f'(a) = 0$ 이다.의 성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교 3종 이상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동일하게 표현된 형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문항의 제시문 (가)를 우선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기반의 개념을 제시문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선행(알고 와야 하는 배경지식) 여부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시험장 내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정보가 되어 논술고사장에서도 읽고 문제를 바로 해석하고 쓸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여 수학적 사고력 및 사용해야 할 정의, 사용되는 성질을 고정해 주어 학생의 문제 접근의 모호함을 갈무리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1번 문항]의 경우 삼각형 ABC의 넓이가 $\frac{1}{4}$ 일 때, (1)에서 점 A의 좌표를 먼저 구하도록 하였으며, [2번 문항]의 경우 (1)에서 $n = 7$ 일 때 $p - q$ 의 값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3번 문항]의 경우 $a = 4$, $b = 1$ 라는 특정한 조건으로 제한하여 주었습니다. 문항을 제시할 때도 통합(수학)논술 문항인 만큼 학생들의 문제 접근에 있어 낯선 상황에서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의 입구를 좁히어 주어 완성도와 정교한 풀이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시문이 제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 2-1]의 출제 의도는 미분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수학의 문자와 식, 기하, 수학II의 미분법, 적분법을 적용하여야 해결할 수 있으며, [문제 2-2]의 출제 의도는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수학의 함수와 확률과 통계(경우의 수, 순열, 조합)를 적용하여야 해결할 수 있으며, [문제 2-3]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조건 및 도함수를 활용하여 삼차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수학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 수학II의 미분법 중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와 미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수학)에서는 문항 수가 제한되어 일부 학생이 특정 단위이나 개념을 우연히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특정 학생에게 결과가 과도하게 좌우되는 평가가 되기보다는, 출제 범위 전반에서 요구되는 수학 핵심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의도에 부합된 문항 배분으로 판단합니다.

고교 교사 입장에서 본 문항 구성은 단편적인 공식 암기나 기계적 계산 능력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념의 이해 정도와 적용 가능성, 조건 해석의 정확성, 논증의 타당성, 풀이에 있어 표현의 명료성까지 함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어, 특정 개념의 맞춤형 준비로 얻어지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평소 폭넓은 수학적 이해와 깊이 있는 사고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2-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문자와 식-④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6] 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2)기하-① 평면좌표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2)기하-②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2)기하-③ 원의 방정식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II	(2)미분-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3)적분-③ 정적분의 활용 [12수학II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문자와 식-⑤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4)함수-①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5)확률과 통계-①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5)확률과 통계-② 순열과 조합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문자와 식-⑥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수학II	(2)미분-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II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출제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출제 범위로 안내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함을 체크하였습니다.
- 문제에 제시된 제시문이 수학과 과목별 성취수준과 일치함을 체크하였습니다.
- 문항 출처 수학II(좋은책 신사고, 137페이지) 발행년도 2018년, 수학(좋은책 신사고, 137페이지) 발행년도 2018년, 수학II(비상, 83페이지) 발행년도 2018년으로 출제 근거가 된 페이지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 개발된 교과서에서 출제됨을 모두 체크하였습니다.
-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위 범위내에서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성취기준과 수학적 역량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가 명확하였음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제 2-1]의 해설은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로 접선의 방정식 → 접점 좌표 결정 → 두 곡선의 교점/구간 설정 →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로드맵이 보입니다.

[문제 2-2]의 해설은 '함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곱의 법칙 및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로 미적분의 개념이 아니라, 함수를 하나의 대응 규칙으로 보고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의 개수를 세는 경우의 수 문제라는 근거가 보입니다.

[문제 2-3]의 해설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방정식을 미지의 계수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낸다.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삼차방정식의 계수를 정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로 일반형으로 세우기 → 미분을 통해 조건을 식으로 바꿔 계수를 정하기 → 그 결과로 근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 찾아내기 → 미분의 활용법 적용하기로 문제 풀이의 과정이 보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각 문항에서 출제자가 요구한 핵심 개념과 풀이의 큰 흐름이 요약되어 서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각 문항별 학생이 어떤 사고단계를 적용하여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내포하고 있어 추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고교현장에서도 표본이 될 로드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세 문항 모두 7단 척도로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은 답과 풀이가 맞음으로, A는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으로 구분하여 수학적 정확성을 구분하여 채점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한 점은 논술형에서는 풀이가 맞지만 최종 계산이 틀리면, 그 답안은 개념을 모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평가의 타당도를 높인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F 척도에서는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으로 하고, D척도에서는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경우도 채점 기준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의 부분 성취 또한 간과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으로 활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 2-1]의 답안은 (1) 우선 C의 좌표를 $(0, c)$ 라 하면 선분 AB의 길이는 $2t$ 로 결정되고 C에서 선분 AB에

이르는 거리와 문제의 조건에서 제시된 삼각형 ABC의 넓이가 $\frac{1}{4}$ 임을 이용하여 $\frac{1}{2} \times 2t \times |c - t^2| = \frac{1}{4}$ 의 방정식이 도출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정식을 해결하여 $c = t^2 \pm \frac{1}{4t}$ 를 구한 후 $c = t^2 - \frac{1}{4t}$ 이면 원 T가 곡선에 접할 수 없으므로 $c = t^2 + \frac{1}{4t}$ 이고 C의 좌표를 $(0, t^2 + \frac{1}{4t})$ 로 서술하였습니다.

점 A에서 $y = x^2$ 에 접하는 직선은 $y = 2tx - t^2$ 이다. 점 C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 T의 반지름인 선분 AC의 길이와 같아야 하므로 또 다른 방정식이 유도되었고 $t^2 - t + \frac{1}{4} = 0$ 를 풀면 점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과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문제 2-1]의 답안은 (2) 곡선 $y = x^2$ 과 직선 AC,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1 이라 하고, 원 T의 내부를 선분 AC와 선분 CO로 잘라서 만들어지는 부채꼴 중 작은 것의 넓이를 S_2 라 하면 구하는 넓이는 $2(S_1 - S_2)$ 로 우선 결정하였습니다.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할 수 S_1 의 넓이는 0과 $\frac{1}{2}$ 사이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S_1 의 넓이를 제시하였습니다. S_2 는 반지름이 $\frac{1}{\sqrt{2}}$ 이고 중심각이 $\frac{\pi}{4}$ 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2(S_1 - S_2) = 2(\frac{5}{24} - \frac{\pi}{16}) = \frac{5}{12} - \frac{\pi}{8}$ 로 서술되었습니다.

[문제 2-2]의 답안은 조건에 부합한 경우를 나눠 서술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 $f(a) > 2a$ 인 함수 f 의 개수는 $f(1) > 2$ 일때, $f(1)$ 은 3, 4, 5, 6, 7의 5가지가 가능, $f(2) > 4$ 일 때, $f(2)$ 은 5, 6, 7의 3가지가 가능, $f(3) > 6$ 이어야 하므로 $f(3)$ 은 7의 1가지가 가능하므로 $p = 5 \times 3 \times 1 = 15$
 한편, $a < b$ 이면 $f(a) < f(b)$ 인 함수 f 를 구하기 위해 1, 2, ..., n 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골라서 크기 순서로 $f(1), f(2), f(3)$ 으로 두는 조합으로 $q = {}_7C_3$ 으로 서술되었습니다.

(2)의 풀이는 (1)에서 연습한 과정을 문자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f(a) > 2a$ 인 함수 f 의 개수는 $p = (n-2)(n-4)(n-6)$ 이며, $a < b$ 이면 $f(a) < f(b)$ 인 함수 f 의 개수는 $q = {}_n C_3$ 가 됩니다.

따라서 $p - q = (n-2)(n-4)(n-6) - \frac{n(n-1)(n-2)}{6} = \frac{(n-2)(5n^2 - 59n + 144)}{6}$ 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

면 됩니다. n 이 7보다 크므로 $n-2 > 0$ 이고 $5n^2 - 59n + 144 = 5(n - \frac{59}{10})^2 - 5(\frac{59}{10})^2 + 144$ 이므로 $n > \frac{59}{10}$

일 때 이차식 $5n^2 - 59n + 144$ 은 n 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문제의 조건에서 $n \geq 7$ 이므로 $5n^2 - 59n + 144$ 은 n 이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n = 9$ 일 때 $5n^2 - 59n + 144 = 18 > 0$ 이므로 $n \geq 9$ 이면 $5n^2 - 59n + 144 > 0$ 이다.

$n = 8$ 일 때 $5n^2 - 59n + 144 = -8 < 0$ 이므로 $p - q > 0$ 을 만족하도록 하는 n 의 최솟값은 9로 결정됩니다.

[문제 2-3]의 답안은 삼각형 OAP에서 밑변 OA의 길이가 일정하므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댓값을 갖는 것은 점 P에서 직선 $y = 4x$ 에 이르는 거리가 최대일 때이며, 이것은 점 P에서의 접선이 직선 $y = 4x$ 와 평행할 경우인 조건을 찾아내면 서술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frac{4}{3}) = 4$ 이며, $g(x) = f(x) - 4x$ 라 하자. $g(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므로 0과 3이 방정식 $g(x) = 0$ 의 근이므로 $g(x)$ 를 $g(x) = x(x-3)(x-b)$ 로 표현하면 됩니다. 한편, $f(x) = g(x) + 4x = x(x-3)(x-b) + 4x = x^3 - (b+3)x^2 + (3b+4)x$ 이고 그것의 도함수를 구하면 $f'(x) = 3x^2 - 2(b+3)x + (3b+4)$ 이고 $f'(\frac{4}{3}) = 4$ 를 적용하면 $b = 8$ 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 = x(x-3)(x-8) + 4x = x^3 - 11x^2 + 28x = x(x-4)(x-7)$ 가 되며, $f(x) = 0$ 의 근이 0, 4, 7이므로 $f(x) = 0$ 의 0이 아닌 두 근은 4, 7이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고교 현장의 교사가 보았을 때도 매우 상세한 과정으로 그 풀이과정을 제시하였고 단계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과정과 이유가 생략없이 정교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답안은 추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함에 있어 학생들의 서술과 표현의 연습 루틴으로 구체적 근거가 될 것이며, 고교 교사 또한 적절한 지도 전략과 첨삭 기준 공유 등 학생의 지도에 있어 채점 요소에 근거한 일관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의 성취기준·평가 루브릭을 현실적으로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8) 종합 의견

건국대학교 KU논술 우수자전형 통합(수학)문항은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범위를 준수하여 출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문항별 제시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기반의 개념을 제시문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선행(알고 와야 하는 배경지식) 여부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시험장 내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정보가 되어 논술고사장에서 읽고 문제를 바로 해석하고 쓸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여 수학적 사고력 및 사용해야 할 정의, 사용되는 성질을 확정해 주어 학생의 문제 접근의 모호함을 갈무리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출제의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통합형(수학)에서는 문항 수가 제한되어 일부 학생이 특정 단위이나 개념을 우연히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특정 학생에게 결과가 과도하게 좌우되는 평가가 되기보다는, 출제 범위 전반에서 요구되는 수학 핵심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의도에 부합된 문항 배분으로 판단합니다.

고교 교사 입장에서 본 문항 구성은 단편적인 공식 암기나 기계적 계산 능력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념의 이해 정도와 적용 가능성, 조건 해석의 정확성, 논증의 타당성, 풀이에 있어 표현의 명료성까지 함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어, 특정 개념의 맞춤식 준비로 얻어지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평소 폭넓은 수학적 이해와 깊이 있는 사고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A+은 답과 풀이가 맞음으로, A는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으로 구분하여 수학적 정확성을 구분하여 채점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한 점은 논술형에서는 풀이가 맞지만 최종 계산이 틀리면, 그 답안은 개념을 모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평가의 타당도를 높은 장치로 판단합니다. 한편, F 척도에서는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으로 하고, D척도에서는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경우도 채점 기준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의 부분 성취 또한 간과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으로 활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답안 또한 매우 상세한 과정으로 그 풀이과정을 제시하였고 단계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과정과 이유가 생략없이 정교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세심한 운영은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함에 있어 고교 교사 또한 적절한 지도 전략과 첨삭 기준 공유 등 학생의 지도에 있어 채점 요소에 근거한 일관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의 성취기준·평가 루브릭을 현실적으로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장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통합(수학)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p>모든 제시문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다.</p> <p>제시문 2-1은 성취기준 '[12수학Ⅱ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시하였다.</p> <p>제시문 2-2는 성취기준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의 내용을 포함하였다.</p> <p>제시문 2-3는 성취기준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p>
--------------------	---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p>[문제 2-1]은 미분을 활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정적분을 이용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선의 기울기와 넓이 계산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다룬 점은 미적분 개념의 통합적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 계산 절차뿐 아니라 개념 간 관계를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항 해설의 제시는 타당하다.</p> <p>[문제 2-2]는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의 수 계산과 함수 개념을 연결하는 사고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조합 공식 적용을 넘어 조건 해석과 구조적 분류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조합론적 사고와 함수 개념 이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한다.</p> <p>[문제 2-3]은 주어진 조건과 도함수 정보를 활용하여 삼차방정식을 해결하도록 한 문항으로, 함수의 미분 정보를 통해 방정식의 해를 도출하는 해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출제 의도는 미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p>
----------------------	--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2-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1-06] 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3]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 II	[12수학 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2-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2-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1-12]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수학 II	[12수학 II 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 II 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근거와 자료의 출처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당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제시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과목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단순 계산 능력을 넘어 개념 이해, 추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은 각 문제에서 요구되는 핵심 개념과 풀이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개념 이해와 추론 과정을 드러내도록 충실히 서술되어 있다. [문제 2-1]의 해설은 미분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접점의 좌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적분을 활용하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 2-2]의 해설은 함수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곱의 법칙과 조합의 수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제 2-3]의 해설은 미정계수를 포함한 삼차방정식에 대하여, 미분을 이용해 계수를 결정한 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함수의 미분 정보와 방정식의 구조를 직접 연결하여 개념 이해와 논리적 추론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제시된 채점 기준은 각 문항의 성취 수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면서 풀이 과정과 개념 이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에서 F까지의 위계적 등급 체계를 통해 정답 도출 여부뿐 아니라 계산 정확성, 풀이의 논리성, 의미 있는 접근 시도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있어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문제 2-1]은 접선의 방정식 도출, 접점 좌표 계산, 정적분을 통한 넓이 산출 등 핵심 해결 단계별 성취를 구분하여 부분 점수를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미적분 개념의 적용 과정을 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문제 2-2]는 곱의 법칙과 조합의 수를 활용한 함수 개수 산출 과정, 조건 해석의 정확성, 계산의 완결성 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경우의 수 사고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문제 2-3]은 삼차함수의 식 구성, 미분계수 조건의 적용, 해 도출 과정의 정당성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함수 해석과 미분 개념 이해를 함께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제시된 예시 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풀이 논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 문항의 풀이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계산 오류 없이 정답에 도달하고 있으며, 서술 방식도 간결하면서 핵심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답안으로 판단된다.

[문제 2-1]은 미분을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 도출, 접점 좌표의 결정, 정적분을 활용한 도형의 넓이 계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계산 과정과 논리 전개가 정확하게 제시되었다. [문제 2-2]는 함수의 조건 해석을 바탕으로 곱의 법칙과 조합의 수를 활용하여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대소 관계 조건을 경우의 수 구조로 일반화하는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문제 2-3]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삼차함수를 설정하고, 미분계수 조건과 함수의 구조를 추론하여 계수를 결정한 뒤 방정식의 해를 도출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함수 해석과 미분 개념의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계산의 정확성과 서술의 명확성이 함께 확보되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이 제시되었다.

8) 종합 의견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통합계열은 인문 영역의 독해 및 논증 능력과 수리 영역의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합계열의 수학 문항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고교 교육과정 중심 출제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개념과 내용 범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대학 수준의 선행지식이나 별도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출제 문항은 교육과정 내 다양한 성취기준을 균형 있게 포함하면서도 사고력 중심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과서 기반 근거 제시를 통해 교육과정 외 요소가 배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 해설은 핵심 개념의 적용 과정과 추론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여 단순 정답 확인을 넘어 수학적 사고 과정 자체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준다. 수학의 다양한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한 점 역시 논술 전형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입학처 유튜브를 통해 출제 범위와 준비 방향 등 논술 전형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은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소통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술 전형 운영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00	○ 소속(직책)	00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자연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의 제시문 1, 2, 3, 4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교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학습한 익숙한 내용을 통해 논술 문항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함.

제시문 1의 (가)는 수학 교과서의 도형의 이동 단원 중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곡선 $y=e^x$ 위의 한 점 A와 곡선 $y=\ln x$ 위의 한 점 B, 그리고 점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조건에 맞는 점 A의 좌표를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제시문 2의 (가)는 수학I 교과서의 수열 단원 중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는 확률과통계 교과서의 확률분포 단원 중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제시문 3의 (가)는 미적분 교과서의 미분법 단원 중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곡선 $y=x^2+1$ 위의 한 점 P에서의 접선과 곡선 $y=-(x-a)^2$ 위의 한 점 Q에서의 접선 및 직선 PQ에 대하여 조건에 맞는 점 P의 좌표와 선분 PQ의 길이 L에 대해 변화율 $\frac{dL}{da}$ 를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제시문 4의 (가)는 수학II 교과서의 도함수의 활용 단원 중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나)에서 곡선 $y=\frac{1}{2}x^2$ 위의 세 점 P_1, P_2, P_3 와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 A에 대하여 세 직선 접선과 곡선 $y=-(x-a)^2$ 위의 한 점 Q에서의 접선 및 직선 PQ에 대하여 세 직선 AP_1, AP_2, AP_3 이 각각 점 P_1, P_2, P_3 에서 곡선 $y=\frac{1}{2}x^2$ 의 접선과 수직이고, 문제의 여러 조건에 맞는 점 A의 개수를 구하도록 그림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됨.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 문제들은 범위에 포함되는 교과들에 있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제시문에서 충분히 출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문제해결의 단계적 접근에서 고교 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개념들이 활용되어 자연계 학생들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종합적 사고력과 이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르게 기술하는 것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9] 원점, x 축, y 축, 직선 $y = x$ 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 I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 I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 II	[12수학 II 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4] 함수 $y = x^n$ (n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9] 음함수와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 II	[12수학 II 02-04] 함수 $y = x^n$ (n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2수학 II 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통계, 미적분의 여러 성취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시문 또한 교과서의 개념 내용을 인용하였기에 출제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 1번부터 4번까지의 제시문 및 문항에 대한 해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안내되었고,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됨.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의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의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 안에서 출제 의도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또한, 논술고사의 특성 및 취지에 맞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풀이과정 및 접근 방법에 충분히 점수가 부여되도록 A+부터 F까지 7단계의 단계별 채점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성과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함.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예시 답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으며, 풀이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기호, 표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제시함. 또한, 향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적절히 제공됨.

[문제1]은 좌표평면에서 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 등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문제2]는 조합의 수,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의 기댓값,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 과정을 이해가 쉽도록 자세히 설명함.

[문제3]은 합성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성질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함.

[문제4]는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 삼차함수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활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안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출제된 문항들의 예시 답안 및 풀이과정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수시모집 논술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적절한 기준과 준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8) 종합 의견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의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기본 개념 등을 첫 번째 제시문에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또한, 모든 문항에 그림을 삽입하여 수험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스스로 추론해보도록 유도함. 모의논술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기초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충실하게 기여하도록 출제되었다고 판단됨.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 위원 성명	김OO	○ 소속(직책)	OO고등학교 교사
○ 검토 계열	자연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제시문 1](가)는 좌표평면 위의 점 (x, y) 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제시문은 (나) 그림에서 곡선 $y=e^x$ 과 곡선 $y=\ln x$ 이 역함수 관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에게 긴장된 시험장 환경에서 첫 문제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풀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시문 2](가)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 $\sum_{k=1}^n k = \frac{n(n+1)}{2}$, $\sum_{k=1}^n k^2 = \frac{n(n+1)(2n+1)}{6}$, $\sum_{k=1}^n k^3 = \left\{\frac{n(n+1)}{2}\right\}^2$ 과 (나)는 이산확률변수 X 의 기댓값 $E(X) = x_1p_1 + x_2p_2 + \dots + x_np_n$ 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조건 모두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 핵심 개념이며 해당 개념을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제시문 3] (가)는 두 함수 $y=f(u)$, $u=g(x)$ 가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y=f(g(x))$ 의 도함수를 2가지 방식으로 $\frac{dy}{dx} = \frac{dy}{du} \times \frac{du}{dx}$ 또는 $y' = f'(g(x))g'(x)$ 제시하였습니다. 미적분의 수학적 접근 방식은 다양합니다, 학생의 문제 접근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를 모두 안내하기 위한 적절한 제시문으로 판단합니다.

[제시문 4] (가)는 함수 $y=f(x)$ 가 $x=a$ 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f(x)$ 위의 점 $(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f(a) = f'(a)(x-a)$ 을 제시하였고 연이은 제시문(나)에서는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그림]에서 '세 점 P_1, P_2, P_3 은 곡선 $y = \frac{1}{2}x^2$ 위에 있고, 점 A는 곡선 위에 있지 않다. 세 직선 AP_1, AP_2, AP_3 은 각각 점 P_1, P_2, P_3 에서 곡선 $y = \frac{1}{2}x^2$ 의 접선과 수직이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그래프만 보고 직관적이고 통찰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복잡한 그래프로 인하여 그것들의 연계성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나)제시문을 차례대로 끊어 읽으면 문제 풀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방법이 명확히 보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제시문으로 판단합니다.

[제시문1]~[제시문4] 모두 2015 교육과정 내 수학과 교육과정을 준수하였으며 수학과 교과별 3종 이상

의 교과서에 제시된 표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문제 1] ‘좌표평면에서 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로 공통수학의 기하와 기본적인 함수 개념, 수학I의 지수함수의 그래프, 미적분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 의도를 이해하였습니다.

[문제 2] ‘조합,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의 기댓값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거듭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로 공통수학의 기본적인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 개념, 수학I의 여러 가지 수열의 합, 확률과 통계의 이산확률 분포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 의도를 이해하였습니다.

[문제 3] ‘합성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의 미분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로 공통수학의 직선의 방정식, 수학II의 미분계수의 정의, 접선의 방정식, 미적분의 음함수와 합성함수 미분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 의도를 이해하였습니다.

[문제 4]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 삼차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로 공통수학의 직선의 수직과 평행의 성질, 수학II의 극대, 극소, 그래프의 개형 등 도함수의 활용을 전반적으로 모두 적용해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 의도를 이해하였습니다.

자연 논술고사에서는 출제범위에 비하여 문항 수가 적어 일부 학생이 특정 과목의 역량이 특출하여 특정한 개념을 우연히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일부 학생에게 결과가 과도하게 좌우되는 평가가 되기보다는, 출제 범위 전반에서 요구되는 수학 핵심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의도에 부합된 문항 배분으로 판단합니다.

고교 교사의 관점에서 본 문항 구성은 단편적인 공식 암기 여부나 기계적 계산 수행 능력만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며,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다각도로 드러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제시된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조합하는 능력, 풀이 과정에서의 논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전개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항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특정 개념이나 특정 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의 요령 중심 학습이나 반복 훈련으로 성취가 과도하게 좌우되기보다, 평소 누적된 개념 이해의 폭과 깊이, 그리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이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는 탐구·추론·의사소통 중심의 학습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타당성과 변별성이 확보된 문항 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2)기하 ④ 도형의 이동 [10수학02-09] 원점, x 축, y 축, 직선 $y=x$ 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4) 함수 ① 함수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I	(1)지수함수와 로그함수 ②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적분	(2)미분법-①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12미적02-0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5)확률과 통계 ①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5)확률과 통계 ② 순열과 조합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I	(3)수열 ② 수열의 합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3)통계 ① 확률분포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2)기하 ②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II	(2)미분 ① 미분계수 [12수학II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2)미분 ② 도함수 [12수학II02-04] 함수 $y = x^n$ (n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II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2)미분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	(2)미분법 ② 여러 가지 미분법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9] 음함수와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2)기하 ② 직선의 방정식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II	(2)미분 ② 도함수 [12수학II02-04] 함수 $y = x^n$ (n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2)미분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II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2수학II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출제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출제 범위로 안내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함을 체크하였습니다.
- 문제에 제시된 제시문이 수학과 과목별 성취수준과 일치함을 체크하였습니다.
- 문항 출처 수학(지학사, 157페이지) 발행년도 2020년, 수학I(천재교과서, 143페이지) 발행년도 2020년, 수학II(좋은책 신사고, 72페이지) 발행년도 2020년, 확률과 통계(지학사, 87페이지) 발행년도 2022년, 미적분(좋은책 신사고 81페이지) 발행년도 2020년으로 출제 근거가 된 페이지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 개발된 교과서에서 출제됨을 모두 체크하였습니다. 제시한 교과서를 포함한 3종 이상의 교과서에 모두 공통으로 제시된 수학적 개념

과 표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위 범위내에서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성취기준과 수학적 역량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가 명확하였음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제 1]의 해설은 점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등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의 해설은 조합의 수, 이산확률변수, 확률변수의 기댓값,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3]의 해설은 합성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여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4]의 해설은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 삼차함수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 문항에서 출제자가 요구한 핵심 개념과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수학적 요소와 채점기준이 요약되어 서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세 문항 모두 7단 척도로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은 답과 풀이가 맞음으로, A는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으로 구분하여 수학적 정확성을 구분하여 채점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한 점은 논술형에서는 풀이가 맞지만 최종 계산이 틀리면, 그 답안은 개념을 모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평가의 타당도를 높인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F 척도에서는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으로 하고, D척도에서는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경우도 채점 기준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의 부분 성취 또한 간과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으로 활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문제 1]은 점 A의 좌표를 (a, e^a) 이라 하면 점 A와 점 B는 직선 $y=x$ 에 대하여 대칭이고 점 A와 점 C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삼각형 OBC는 이등변삼각형이고 $\angle AOB = \angle OCB + \angle OBC = 2\angle OCB = 2\angle ACB$ 이므로 $\angle AOB$ 의 크기가 최소일 때 $\angle ACB$ 의 크기가 최소임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y=e^x$ 의 그래프와 $y=\ln x$ 의 그래프가 직선 $y=x$ 에 대하여 대칭이고 점 A와 점 B가 직선 $y=x$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직선 OA가 곡선 $y=e^x$ 의 접선일 때 직선 OB도 곡선 $y=\ln x$ 의 접선이고 이때 $\angle AOB$ 의 크기가 최소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 OA의 방정식은 $y=e^a x$ 이고, 이 직선이 점 $A(a, e^a)$ 를 지나므로 $a=1$ 임을 구하는 과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문제 2]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세 장의 카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_{10}C_3$ 이다.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가 9이면, 가장 큰 수는 10, 가장 작은 수는 1이므로 나머지 수는 2, 3, ..., 9의 8가지 경우가 가능하여 $P(X=9) = \frac{8}{{}_{10}C_3} = \frac{1}{15}$ 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2)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후 n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세 장의 카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_n C_3$ 이다.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가 k 이므로,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크기순으로 a, b, c 라 하면 $c=a+k$ 이다. $a+k \leq n$ 이므로 $a \leq n-k$ 이다. 따라서 a 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dots, n-k$ 로 $n-k$ 가지이다. 각각의 a 에 대하여 $a < b < a+k$ 이므로 b 는 $a+1$ 부터 $a+k-1$ 까지의 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각각의 a 에 대하여 b 가 될 수 있는 수는 $k-1$ 가지이다. 따라서 카드에 적힌 세 개의 수 중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값이 k 인 것은 총 $(n-k) \times (k-1)$ 가지가 있으며,

$P(X=k) = \frac{(n-k)(k-1)}{{}_n C_3}$ 이며, 기댓값은 $E(X) = \frac{1}{{}_n C_3} \sum_{k=2}^{n-1} k(n-k)(k-1) = \frac{1}{{}_n C_3} \sum_{k=1}^n k(n-k)(k-1) = \frac{n+1}{2}$ 을 구할 수 있으며 주

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59$ 을 구하는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3]의 (1)의 풀이에서는 점 P의 좌표를 (b, b^2+1) 이라고 하자. 점 P에서의 접선 l_1 의 기울기는 $2b$ 이고, 점 Q의 좌표를 $(c, -(c-8)^2)$ 이라고 하자. 점 Q에서의 접선 l_2 의 기울기는 $-2(c-8)$ 이며, 직선 l_1 과 l_2 가 평행하므로 관계식 $c=8-b$ 가 도출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직선 PQ의 기울기와 직선 PQ가 직선 l_1 과 수직인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 $b^3+b-2=0$ 가 제시되었으며 $(b-1)(b^2+b+2)=0$ 에서 점 P의 좌표는 $(1, 2)$ 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3]의 (2)의 풀이에서는 (1)의 풀이에서 문자로 변환한 과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점 P의 좌표를 (b, b^2+1) , 점 Q의 좌표를 $(c, -(c-a)^2)$ 라 하면, 접선 l_1 의 기울기는 $2b$ 이고, 접선 l_2 의 기울기는 $-2(c-a)$ 이고, 직선 l_1 과 l_2 가 평행하므로 $c=a-b$ 이고, 점 Q의 좌표는 $(a-b, -b^2)$ 을 구하는 과정이 서술되었습니다. (1)과 마찬가지로 직선 PQ의 기울기와 직선 PQ가 직선 l_1 과 수직인 성질을 적용하여 관계식 $a=4b^3+4b$ 과 도출되고 점 Q의 좌표 $(4b^3+3b, -b^2)$ 와 점 P의 좌표가 이용하면 $L=\sqrt{(4b^3+2b)^2+(2b^2+1)^2}=\sqrt{4b^2(2b^2+1)^2+(2b^2+1)^2}=(2b^2+1)\sqrt{4b^2+1}$ 를 구할 수 있음이 서술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은 큰 어려움 없이 도함수 미분과 역함수 미분을 차례로 적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되었습니다.

[문제 4]의 풀이는 case를 많이 구분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 P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t 이고 직선 AP와 수직인 관계를 적용하면 $t^3-2(b-1)t-2a=0$ 의 식을 나오며 주어진 식을 함수로 보고 조건 (2)를 만족시키려면 $f(t)=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함으로 미분하여 $f'(t)=3t^2-2(b-1)$ 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평균 이상의 학생이라면 모두 접근 가능한 수준의 해설로

(i) $b=5$ 일 때

$\sqrt{\frac{2(b-1)}{3}} = \sqrt{\frac{8}{3}}$ 이다. $f(t)=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f\left(\sqrt{\frac{8}{3}}\right) \times f\left(-\sqrt{\frac{8}{3}}\right) < 0$ 이다.

$-\frac{8}{3}\sqrt{\frac{8}{3}} < a < \frac{8}{3}\sqrt{\frac{8}{3}}$ 이고, $a^2 < \frac{512}{27} = 18 + \frac{26}{27}$ 이므로 $a \leq 4$ 이다. 조건 (1)에 의해 $a=4$ 이다.

(ii) $b=6$ 일 때

$\sqrt{\frac{2(b-1)}{3}} = \sqrt{\frac{10}{3}}$ 이다. $f(t)=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f\left(\sqrt{\frac{10}{3}}\right) \times f\left(-\sqrt{\frac{10}{3}}\right) < 0$ 이다.

$a^2 < \frac{1000}{27} = 37 + \frac{1}{27}$ 이므로 $a \leq 6$ 이다. 조건 (1)에 의해 $a=4, 5, 6$ 이다.

(iii) $b=7$ 일 때

$\sqrt{\frac{2(b-1)}{3}} = 2$ 이다. $f(t)=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f(2) \times f(-2) < 0$ 이다.

따라서 조건 (1), (2)를 모두 만족시키는 점 $A(a, b)$ 의 개수는 $1+3+4=8$ 이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고교 현장의 교사가 보았을 때도 매우 상세한 과정으로 그 풀이과정을 제시하였고 단계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과정과 이유가 생략없이 정교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답안은 추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함에 있어 학생들의 서술과 표현의 연습 루틴으로 구체적 근거가 될 것이며, 고교 교사 또한 적절한 지도 전략과 첨삭 기준 공유 등 학생의 지도에 있어 체점 요소에 근거한 일관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의 성취기준·평가 루브릭을 현실적으로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8) 종합 의견

건국대학교 KU논술 우수자전형 자연문항은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범위를 준수하여 출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자연 논술고사에서는 출제범위에 비하여 문항 수가 적어 일부 학생이 특정 과목의 역량이 특출하여 특정한 개념을 유연히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일부 학생에게 결과가 과도하게 좌우되는 평가가 되기보다는, 출제 범위 전반에서 요구되는 수학 핵심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의도에 부합된 문항 배분으로 판단합니다.

고교 교사의 관점에서 본 문항 구성은 단편적인 공식 암기 여부나 기계적 계산 수행 능력만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며,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다각도로 드러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제시된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조합하는 능력, 풀이 과정에서의 논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전개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항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특정 개념이나 특정 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의 요령 중심 학습이나 반복 훈련으로 성취가 과도하게 좌우되기보다, 평소 누적된 개념 이해의 폭과 깊이, 그리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이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학교 수업에서 강조하는 탐구·추론·의사소통 중심의 학습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타당성과 변별성이 확보된 문항 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A+은 답과 풀이가 맞음으로, A는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으로 구분하여 수학적 정확성을 구분하여 채점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한 점은 논술형에서는 풀이가 맞지만 최종 계산이 틀리면, 그 답안은 개념을 모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므로 평가의 타당도를 높인 장치로 판단합니다. 한편, F 척도에서는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으로 하고, D척도에서는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경우도 채점 기준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의 부분 성취 또한 간과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으로 활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답안 또한 매우 상세한 과정으로 그 풀이과정을 제시하였고 단계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과정과 이유가 생략없이 정교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세심한 운영은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를 준비함에 있어 고교 교사 또한 적절한 지도 전략과 첨삭 기준 공유 등 학생의 지도에 있어 채점 요소에 근거한 일관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의 성취기준·평가 루브릭을 현실적으로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선행학습관련 문항별 검토의견서

1. 인적사항 및 검증 과목

<input type="radio"/> 위원 성명	장OO	<input type="radio"/> 소속(직책)	OO고등학교 교사
<input type="radio"/> 검토 계열	자연		

2. 검토 내용

※ 제시문(문제 포함),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출제 전 영역에서의 현행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기술

1)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

2) 제시문의 적절성	<p>모든 제시문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다.</p> <p>제시문 1은 성취기준 '[10수학02-09] 원점, x축, y축, 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에 근거하여 지수로그함수의 대칭이동을 제시하였다.</p> <p>제시문 2는 성취기준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의 내용을 포함하였다.</p> <p>제시문 3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성취기준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p> <p>제시문 4는 성취기준 '[12수학 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여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였다.</p>
--------------------	---

3) 출제 의도의 적절성	<p>[문제1]은 좌표평면에서 점의 대칭이동과 함수-역함수의 그래프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문제 해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래프의 대칭성과 대응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은 함수의 구조적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p> <p>[문제 2]는 조합, 이산확률변수, 기댓값, 그리고 거듭제곱의 합 계산을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확률과 수열 영역의 핵심 개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기대값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요구되므로 사고력 중심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p> <p>[문제 3]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미분 개념의</p>
----------------------	---

형식적 계산 능력뿐 아니라 함수 관계에 대한 개념 이해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역함수 미분 공식을 논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문제 4]는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관계와 삼차함수의 극대·극소 개념을 결합하여 기하적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미분을 통한 함수 분석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는 함수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 역량을 점검하는 데 적절한 구성이다. 개념 간 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출제 의도는 교육과정에 적합하면서 평가 타당성을 충족한다.

4) 출제 근거(교육과정 근거, 자료 출처)의 적절성			
문제	적용 교육과정	교과목	성취기준
문제1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9] 원점, x 축, y 축, 직선 $y = x$ 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 I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적분	[12미적02-0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문제2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5-03]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 I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문제3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 II	[12수학 II 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4] 함수 $y = x^n$ (n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
문제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10수학02-04]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해한다.
		수학 II	[12수학 II 02-04] 함수 $y = x^n$ (n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 II 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2수학 II 02-10]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근거와 자료의 출처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당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제시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과목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단순 계산 능력을 넘어 개념 이해, 추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우수한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5) 문항 해설의 적절성

문항 해설은 각 문제에서 요구되는 핵심 개념과 풀이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문제 1]의 해설은 원점 대칭과 함수·역함수 그래프의 대응 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문제 2]의 해설은 조합의 수 산출 과정과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계산, 거듭제곱의 합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제 3]의 해설에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원리를 근거 중심으로 설명하여 미분계수 도출의 타당성을 분명히 하였고, [문제 4]의 해설 역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관계와 삼차함수의 극값 판단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문항 해설은 개념 이해와 추론 과정을 함께 드러내도록 적절히 구성되었다.

6) 채점 기준의 적절성

제시된 채점 기준은 각 문항의 성취 수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면서 풀이 과정과 개념 이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에서 F까지의 위계적 등급 체계를 통해 정답 도출 여부뿐 아니라 계산 정확성, 풀이의 논리성, 의미 있는 접근 시도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고 있어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문제 1]과 [문제 2]에서는 그래프 해석, 기댓값 계산, 경우의 수 표현 등 핵심 개념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 점수를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과정 중심 평가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있다. [문제 3]과 [문제 4] 역시 미분 과정, 극값 판단 등을 단계별로 평가하도록 하여 단순 결과 중심 채점을 넘어 수학적 사고 과정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수학 학습 성취를 다면적으로 측정하고 우수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타당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7) 예시 답안의 적절성

제시된 예시 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풀이 논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 문항의 풀이 단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계산 오류 없이 정답에 도달하고 있으며, 서술 방식도 간결하면서 핵심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답안이다.

[문제 1]은 원점 대칭과 함수·역함수의 기하적 관계를 활용하여 최소 각의 조건을 해석하고, 접선의 기울기와 방정식을 통해 해를 도출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개념 이해와 추론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난다. [문제 2]는 조합의 수 계산에서 출발하여 이산확률변수의 분포를 일반화하고 기댓값을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계산 과정과 수식 전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사고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제 3]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관계, 기울기 조건, 거리 함수의 미분 등 여러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풀이가 전개되며, 복합적 미분 구조를 정확한 수식 처리로 해결하고 있어 수학적 완결성을 보여준다. [문제 4]는 극값 조건과 부등식 해석을 통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함수 해석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

8) 종합 의견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KU논술우수자전형 자연계열 논술의 모든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였다. 제시문과 문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당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대학 교육과정의 선행학습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제 문항들은 교육과정 내 다양한 성취기준을 균형 있게 포함하면서도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교과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해설 역시 각 문제에서 요구되는 핵심 개념과 풀이의 논리 전개를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충실히 설명하고 있어 적절성이 높으며, 단순한 정답 도출을 넘어 수학적 사고 과정과 추론 구조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불어 출제 근거는 제시된 시험 범위 내의 여러 교과 영역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개념 이해, 추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도록 짜임새 있게 설계되었다.

한편 건국대학교는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항과 해설을 공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교육만으로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운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학교 중심의 논술 대비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